

| SRI-기본-2019-13 |

일제강점기 수원관립건축 훼손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to Demolish Official Buildings in Suwo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안국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최지해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2019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22-0 (9354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안국진. 2019. 「일제강점기 수원관립건축 훼손과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일제강점기 하에서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주요 시설은 하나씩 철거되기 시작하였고, 수원화성의 정체성은 말살되었다. 수원화성행궁의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행궁중심영역은 경기도관찰부가 경성으로 이전하면서 자혜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북군영 자리에는 수원경찰서가, 우화관 자리에는 수원공립보통학교, 낙남헌 자리에는 수원군청이 들어섰다.

18세기 정조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수원화성의 중요한 건물은 20세기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철거되고 훼손되었지만, 언제 어떤 건축물이 철거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정리한 문헌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화성의 주요 건물들의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나 분석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화성의 관립건축의 철거 및 훼손시기를 정리한다. 둘째, 수원화성의 관립건축의 철거 및 훼손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다. 셋째, 관립건축의 공간변용의 요인을 정리한다. 언급하는 관립건축이란 공공건축물 중에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자 관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수원화성의 관립건축은 1)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행궁중심영역 2) 낙남헌 3) 우화관 4) 남·북군영 5) 강무당 6) 이아 7) 증영이다. 각각의 건물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관공서가 들어섰고, 어떤 과정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 갔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혜의원은 1923년 신본관 건축 당시 봉수당이 헐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봉수당은 헐리지 않고 일반병실동으로 개조되어 계속 사용되었다.
- 낙남헌은 수원군청의 이전 이 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된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낙남헌 내부를 도서관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다.
-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경우 최초 설립 위치는 ‘이아’가 아니라 ‘강무당’ 이었다.
- 수원지방법원의 직원실에 있는 ‘탕탄소’라는 다실(茶室)은 수원관립건축 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일제초기 ‘이아’는 수비대의무실로 사용되다 1920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 신축

이전하면서 이아건물이 헐려나갔다.

- 북군영 건물은 1910년경 수원경찰서가 개축되면서 헐렸고, 이후 증축과정에서 일부 경찰서 부지가 확장 되었다.
- 남군영은 일제초기 헌병파견소로 사용되다 1932년 토목관구가 신축이전하였고, 그 이전에 남군영 건물이 헐렸다.
- 중영은 수비대 (1907년~19?) → 다카노야마 국민학당(19?~1935년) → 수원군청(1938년~) 순으로 사용되었고, 중영 건물은 1938년 이전에 완전히 헐려나갔다.

차례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초자료 검토	4
1. 연구 방법	4
2. 기초자료 검토	5
제2장 수원관립건축의 위치와 규모	7
제1절 행궁 영역	10
제2절 행정 및 군사 영역	16
제3절 기타 영역	19
제3장 수원관립건축의 변용 과정	21
제1절 행궁중심 영역	23
1. 경기관찰부의 이전과 자혜의원 설치	23
2. 1923년 신본관 개축 이후의 변화	26
제2절 낙남헌	35
1. 수원군청	35
2. 수원토목관구	39
3. 수원세무서	44
4. 수원도서관	48
제3절 우화관	51
제4절 남·북군영	56
1. 남군영	56
2. 북군영	59

제5절 강무당	68
제6절 이아	73
1. 수비대의무실	73
2.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75
제7절 중영	79
제4장 맺음말	85
참고문헌	91

표 차례

〈표 3-1〉 1916년 경기도 토목관구 관할지역	39
〈표 3-2〉 1921년 토목관구 관할지역	39

그림 차례

〈그림 1-1〉 수원토목관구에 관한 정리 예시	4
〈그림 1-2〉 연구흐름도	4
〈그림 1-3〉 기존 문헌자료와 지도 자료들	6
〈그림 1-4〉 새롭게 공개된 도면 및 문서들	6
〈그림 2-1〉 화성도병(華城圖屏) (19세기 후반)	9
〈그림 2-2〉 수원관립건축의 위치 (1911)	10
〈그림 2-3〉 현재 복원된 봉수당의 모습	11
〈그림 2-4〉 수원관립건축의 위치 (1911)	12
〈그림 2-5〉 현재 복원된 낙남헌의 모습	13
〈그림 2-6〉 현재 복원된 득증정의 모습	14
〈그림 2-7〉 화성행궁 지붕평면 계획배치도	16
〈그림 2-8〉 화녕전의 운한각 (1929)	20
〈그림 3-1〉 19세기 후반 화성도병	23
〈그림 3-2〉 수원자혜의원 봉수당과 중앙문 (1914)	24
〈그림 3-3〉 수원자혜의원 배치도 1910년대(추정, 좌)와 1919년(우)	25
〈그림 3-4〉 수원자혜의원 배치도 1919년(좌), 1921년(우)	25
〈그림 3-5〉 수원자혜의원부지배치도면 (1923)	26
〈그림 3-6〉 1914년 수원자혜의원(좌)과 1923년 수원자혜의원(우)	27
〈그림 3-7〉 군산자혜의원의 배치도 (1921)	28
〈그림 3-8〉 나남자혜의원의 배치도 (1920)	28
〈그림 3-9〉 화성행궁	28
〈그림 3-10〉 수원자혜의원 배치도(1923)	28
〈그림 3-11〉 수원자혜의원 신본관 평면도 1층(좌), 2층(우)	29
〈그림 3-12〉 수원자혜의원 신본관 입면도 전면(좌), 배면(우)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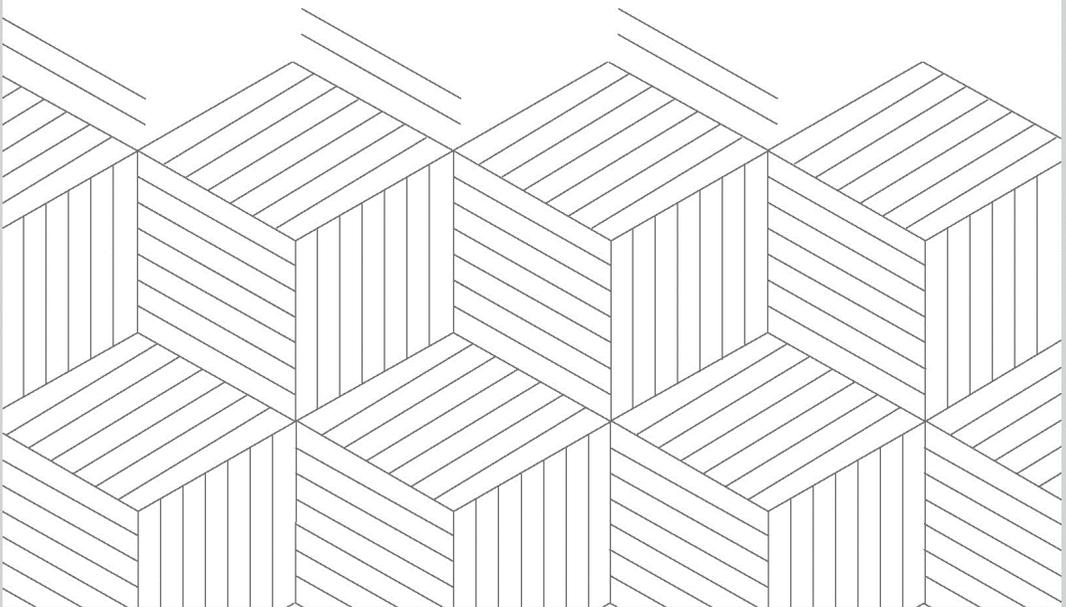
〈그림 3-13〉 수원자혜의원 본관 신축공사 설계도 : 단면도 (1923)	30
〈그림 3-14〉 경기도립수원의원(舊 수원자혜의원) (1929)	31
〈그림 3-15〉 수원자혜의원 배치도 (1923)	32
〈그림 3-16〉 A : 본관에서 병실로 변경된 봉수당 (1923)	32
〈그림 3-17〉 B : 일본인병실에서 간호사기숙사로 변경 (1923)	33
〈그림 3-18〉 C : 온돌병실의 개조 전후 (1923)	33
〈그림 3-19〉 D : 시료병실의 개조 전후 (1923)	34
〈그림 3-20〉 E : 전염병실 개조 전후 (1923)	34
〈그림 3-21〉 낙남헌의 시기별 사용변화	35
〈그림 3-22〉 19세기 후반 화성도병(좌)과 1911년 수원지적도(우)	36
〈그림 3-23〉 수원군청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 (1910년대)	36
〈그림 3-24〉 수원군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남헌 (1929)	37
〈그림 3-25〉 1910년대(좌)와 1938년(우)의 수원군청 배치도	38
〈그림 3-26〉 수원군청의 위치변화(좌)와 수원군청 신청사(우) (1938)	38
〈그림 3-27〉 매일신보 1916년 10월 1일자 기사	40
〈그림 3-28〉 수원군청과 토목관구 (1923)	40
〈그림 3-29〉 매일신보 1932년 9월 4일자 기사	41
〈그림 3-30〉 「관광의 고도, 수원」 (1936)	41
〈그림 3-31〉 조선신문 1932년 9월 12일자 기사	42
〈그림 3-32〉 광주토목관구 사무실 증축공사 평면도 1층(좌), 2층(우) (1931)	43
〈그림 3-33〉 광주토목관구 사무실 증축공사 정면도(좌), 측면도(우) (1931)	43
〈그림 3-34〉 조선신문 1934년 5월 20일자 기사	44
〈그림 3-35〉 수원군청과 수원세무서 (1930년대)	44
〈그림 3-36〉 수원읍일부약도 세무서 위치 (1938)	45
〈그림 3-37〉 수원읍 매산정3정목 28번지 수원세무서 배치도 (1938)	46
〈그림 3-38〉 수원세무서 배치도(좌) 및 수원조선주주조합회사 사무소 평면도(우)	47
〈그림 3-39〉 수원세무소 이전 위치(좌) (1943)와 현재 수원세무서 위치(우) (2019) ..	47
〈그림 3-40〉 수원읍지도 (1943)	48
〈그림 3-41〉 매일신보 1939년 1월 14일자 기사	49
〈그림 3-42〉 동아일보 1940년 5월 4일자 기사	49
〈그림 3-43〉 1938년 수원군청 배치도(좌)와 1939년 수원도서관 배치도(우)	50

〈그림 3-44〉 1910년대 수원군청사의 평면도(좌)와 1939년 수원도서관 평면도(우) ……	50
〈그림 3-45〉 수원지적도 (1911) ……	51
〈그림 3-46〉 수원지도 (1917) ……	51
〈그림 3-47〉 수원공립보통학교 (1915) ……	52
〈그림 3-48〉 수원공립보통학교 (1918) ……	52
〈그림 3-49〉 수원공립보통학교 (1923) ……	53
〈그림 3-50〉 수원공립보통학교 (1929) ……	54
〈그림 3-51〉 수원항공사진 수원공립보통학교 부분 (1931) ……	54
〈그림 3-52〉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사신축 낙성식 (매일신보 1933.12.28) ……	55
〈그림 3-53〉 수원공립보통학교 (1940) ……	55
〈그림 3-54〉 남·북군영 위치 (19세기 후반) ……	56
〈그림 3-55〉 남군영에 위치한 헌병파견소 (1917) ……	57
〈그림 3-56〉 남군영 자리에 위치한 토목관구 (1936) ……	58
〈그림 3-57〉 황성신문 1909년 4월 25일자 기사 ……	61
〈그림 3-58〉 수원경찰서청사 신축도면 (1910년 추정) ……	62
〈그림 3-59〉 수원경찰서청사 (1910년대) ……	63
〈그림 3-60〉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1910-12 추정) ……	63
〈그림 3-61〉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전면도(좌)와 후면도(우) (1910-12 추정) ……	63
〈그림 3-62〉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측면도 (1910-12 추정) ……	63
〈그림 3-63〉 수원경찰서 (1929) ……	64
〈그림 3-64〉 이등경찰서 검도장 공통도면 (1910-12 추정) ……	64
〈그림 3-65〉 초기 수원경찰서 (1910년대) ……	65
〈그림 3-66〉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공사설계도 (1910년대) ……	65
〈그림 3-67〉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공사설계도 상세 (1910년대) ……	65
〈그림 3-68〉 1911년 수원지적도(좌), 1917년 수원지도(우) ……	66
〈그림 3-69〉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기타 공사설계도_입면도 (1910년대) ……	66
〈그림 3-70〉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기타 공사설계도 (1910년대) ……	67
〈그림 3-71〉 1917년 당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위치 ……	68
〈그림 3-72〉 1917년의 수원지방법원(좌)과 1910년대의 수원지방법원 ……	69
〈그림 3-73〉 수원구재판소 증축 급 모양체 공사설계도(1909-11 추정) ……	69
〈그림 3-74〉 수원구재판소 증축 급 모양체 공사설계도 (1909-11 추정) ……	70

〈그림 3-75〉 탕탄소(湯呑所) 모습	70
〈그림 3-76〉 1910년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70
〈그림 3-77〉 수원구재판소 증축공사로 인한 변화 (1910-20 추정)	71
〈그림 3-78〉 「관광의 고도, 수원」 (1936)	72
〈그림 3-79〉 강무당 자리에 위치한 수리조합 (1943)	73
〈그림 3-80〉 수비대의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이아 (1917)	74
〈그림 3-81〉 19세기 화성도병(華城圖屏)의 이아(좌)와 1917년 수원지도의 이아(우) ...	74
〈그림 3-82〉 1917년 이아(좌)와 1918년 수원지방법원 신축부지 공사평면도(우)	75
〈그림 3-83〉 매일신보 1920년 4월 25일자 기사(좌)와 수원지방법원 위치변화(우) ...	76
〈그림 3-84〉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입면도 (1918)	76
〈그림 3-85〉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923)	77
〈그림 3-86〉 평양지방법원 안주지청 신축공사 배치도 (1926)	78
〈그림 3-87〉 수원시도로공사계획도 (1932)	78
〈그림 3-88〉 수원읍지도 (1943)	78
〈그림 3-89〉 수원수비대 (1917)	80
〈그림 3-90〉 다카노야마(高野山) 국민학당 (1932)	80
〈그림 3-91〉 수원수비대 (1910년대)	81
〈그림 3-92〉 다카노야마(高野山) 국민학당 (1929)	82
〈그림 3-93〉 수원군청 신청사 (매일신보 1938년 8월 4일자 기사)	82
〈그림 3-94〉 수원군청사 신축공사 배치도 (1938)	83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초자료 검토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일제강점기 하에서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주요 시설은 하나씩 철거되기 시작하였고, 수원화성의 정체성은 말살되었다. 수원화성행궁의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행궁중심영역은 경기도관찰부가 경성으로 이전하면서 자혜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북군영 자리에는 수원경찰서가, 우화관 자리에는 수원공립보통학교, 낙남헌 자리에는 수원군청이 들어섰다.

18세기 정조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수원화성의 중요한 건물은 20세기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철거되고 훼손되었지만, 언제 어떤 건축물이 철거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면이나 사진 등으로 정리한 문헌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화성의 주요 건물들의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나 분석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화성의 행궁 및 관립건축의 변화양상을 정리·분석을 하여 건물의 철거 및 훼손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관립건축이란 공공건축물 중에서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자, 관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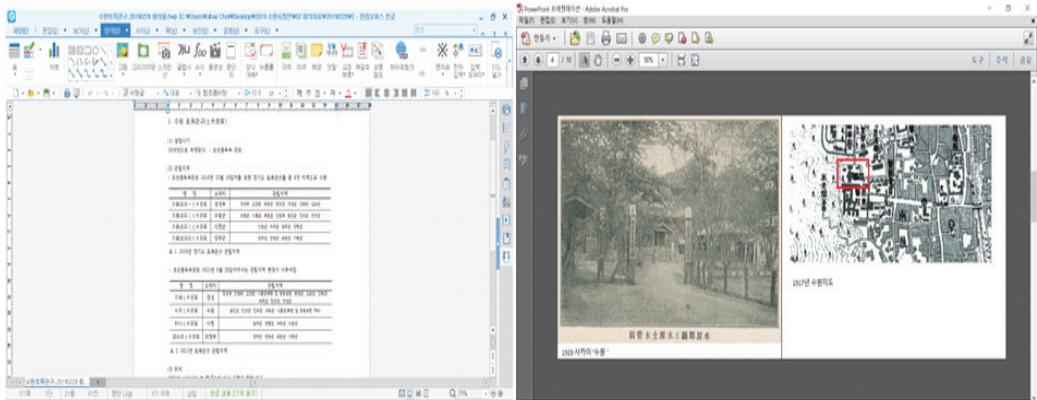
- 첫째, 수원화성의 관립건축의 철거 및 훼손시기를 정리한다.
- 둘째, 수원화성의 관립건축의 철거 및 훼손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다.
- 셋째, 관립건축의 공간변용의 요인을 정리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초자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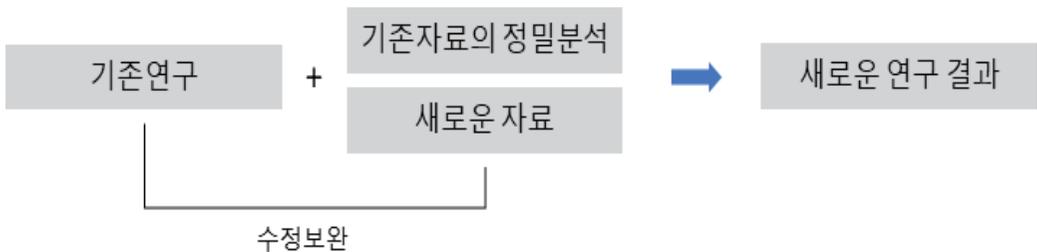
1. 연구 방법

지도, 사진, 문헌 등에서 새롭게 발견되거나 이미 알려졌으나 제대로 연구가 되어있지 않았던 관립건축을 위주로 설립시기, 위치와 특징들을 건축물별로 분류하여 문서자료와 사진 및 도면 자료로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수원토목관구에 관한 정리 예시



〈그림 1-2〉 연구흐름도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연구에 대한 정밀분석과 함께 기존연구에서 수정보완 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자료의 1차 사료들 중에서 아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위주로 상세히 분석을 하였다. 또, 국가기록원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 중에서 연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기존 자료와 함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기초자료 검토

1) 선행연구

먼저 수원 근대건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장필구 (2012)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 평양의 풍경궁과 수원의 화성행궁이 일제시기 자혜의원으로 사용되었는데, 병원이라는 기능에 맞추어 구체적인 건물의 변화양상을 비교분석 함
-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 근대 수원 읽기』 : 일제시기 자혜의원과 수원군청으로 사용되었던 행궁건물과 낙남헌에 대해 분석 및 자세한 설명이 있음.
- 이상해 (2014) 「화성행궁의 주요건물」 『수원시사 17권 - 수원화성』 : 행궁을 공간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당시 미복원 건물과 화녕전도 분석함
- 안국진 (2014) 「수원근대건축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건축 도면을 중심으로 」 :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던 수원 근대건축물 도면자료가 집성되어 있음
- 안국진 (2015) 「수원 권업모범장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 당시 수원화성 밖의 주요 시설 중의 하나였던 권업모범장의 공간변화 과정을 분석함
- 안국진(2016) 「수원농림학교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 권업모범장과 함께 수원역 서측에 위치한 수원농림학교를 당시 도면을 통해 당시의 건축술에 대해 정밀 분석함
- 안국진(2017) 「일제강점기 수원 권업모범장 건축술에 관한 연구」 : 일본 근대건축술과 비교를 통해 수원 지역 풍토에 맞는 건축기술의 변화를 입증함
- 안국진(2018) 「우화관 복원에 따른 근대건축자산 존치여부에 관한연구」 : 화성유수부의 객사(客舍)로 사용했었던 우화관의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자료제공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관한 연구
- 안국진 (2018)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수원의 행정영역, 도로 구조의 변화 및 주요 건축물의 위치와 도시경관에 변화를 분석, 주요 건축물 중에서 관공서의 위치 및 건축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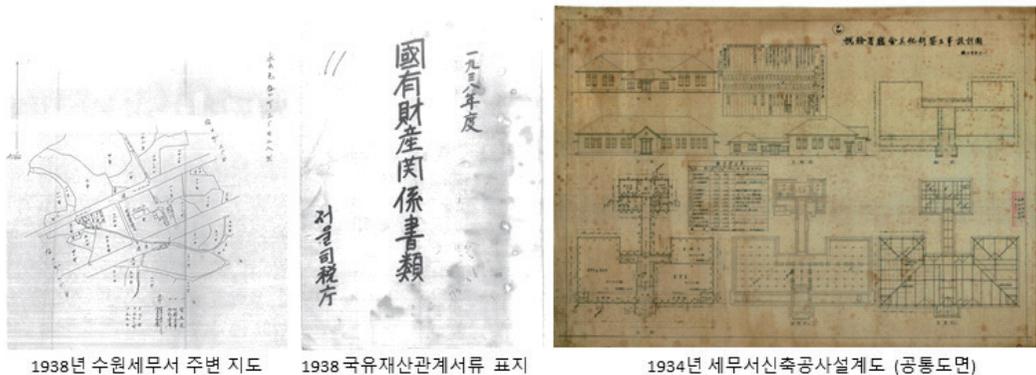
2) 기초자료

기존에 있던 기초자료로는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쓴 『發展せる水原(발전하는 수원)』(1914)과 『水原(수원)』(1923)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1929년에 발간한 『생활상태 조사1 -수원군』이 있다. 그 외에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중인 수원자혜의원, 수원경찰서, 수원구재판소,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수원군청 등의 도면자료와 당시 신문자료, 지도 등이 있다. 특히 도면자료의 경우 이미 알려진 자료는 많으나 상세히 분석이 안 된 도면 자료가 많다.

〈그림 1-3〉 기존 문헌자료와 지도 자료들



〈그림 1-4〉 새롭게 공개된 도면 및 문서들



최근에 새롭게 공개된 국가기록원 자료로는 1938년 수원세무서 주변지도와 1938년 수원군청 신축공사 배치도, 구 수원군청사 수선공사계획도 등이 있다. 새로운 자료는 기존자료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연구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주었다.

그 외에 신문아카이브, 조선총독부관보, 근현대 회사 자료, 전시도록, 조사보고서 등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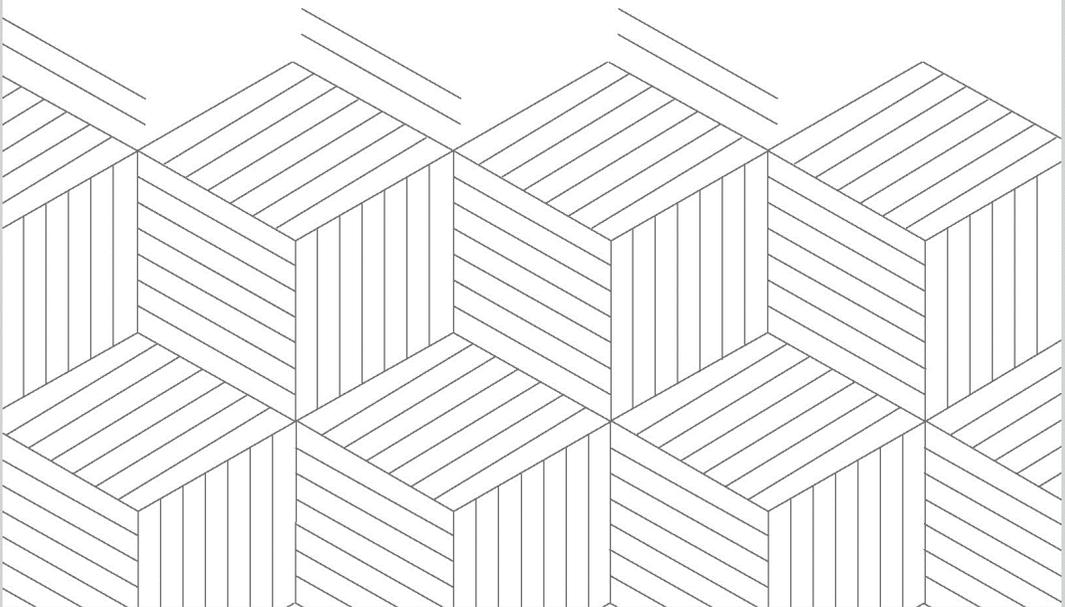
자료로 활용되었다.

제2장 수원관립건축의 위치와 규모

제1절 항공 영역

제2절 행정 및 군사 영역

제3절 기타 영역



제2장 수원관립건축의 위치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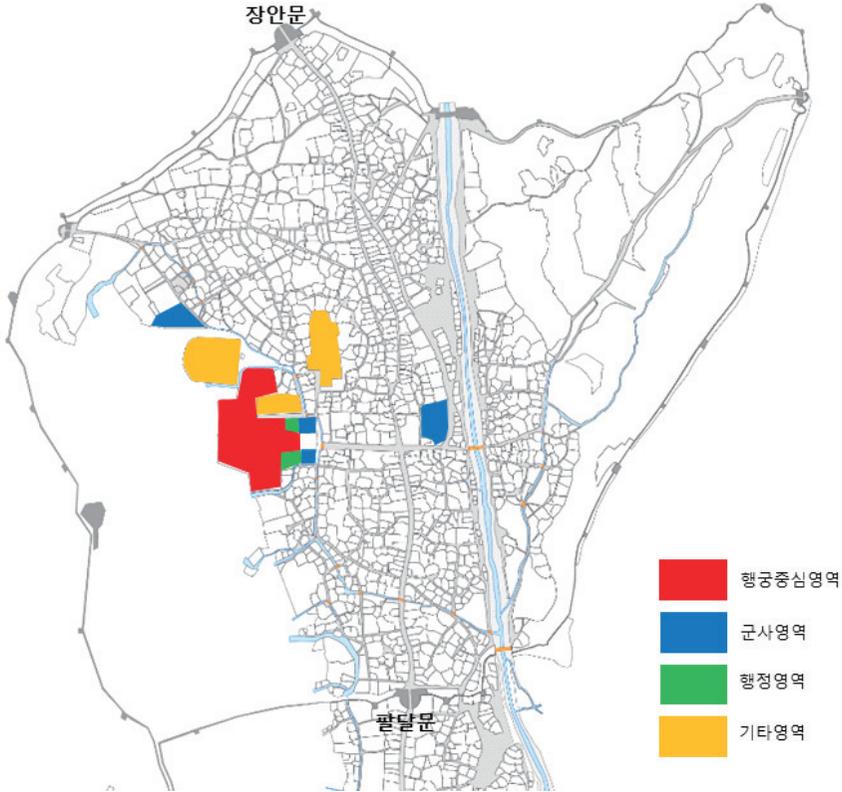
〈그림 2-1〉 화성도병(華城圖屏) (19세기 후반)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수원 화성 내의 관립건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행궁 중심영역, 행정 및 군사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이다.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에서도 중심에서 서쪽에 있으며 뒤로는 팔달산이 있다. 관립건축들은 행궁 주변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모여 있다. 이 장에서는 원래 화성행궁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 수원관립건축의 위치 (1911)



제1절 행궁영역

1. 봉수당奉壽堂

봉수당은 화성행궁의 정전(正殿)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며 행궁의 정문인 신평구를 지나 좌익문과 중앙문으로 연결되는 중심축의 가장 윗자리에 위치한다. 평상시에는 수원유수가 집무하는 행정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790년 2월에는 봉수당 앞에서 문무과 시험이 치러지기도 하였으며 1795년 을묘년에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거행되었다. 1796년 11월 정조의 명을 받아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봉수당 상량문을 지었다. 봉수당은 1794년 옛 건물 43칸에 새로 48칸을 지어 총 91칸의 행각과 7량 21칸의 정당으로 완성되었다.¹⁾

1)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pp38

〈그림 2-3〉 현재 복원된 봉수당의 모습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2. 장락당長樂堂

장락당은 1794년(정조 18)에 화성행궁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건물이다. 이듬해(1795년, 을묘)에 있을 원행에 혜경궁이 머물 처소로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으며, 정조가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빌며 직접 편액을 썼다.²⁾ 혜경궁의 회갑연 때 침소로 사용되었다. 봉수당의 서남쪽 행각과 서로 이어져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연회가 펼쳐지는 동안 혜경궁이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향을 한 장락당은 본채 7량 13칸에 남쪽 각도(閣道) 3칸, 서쪽 행각 9칸을 더하여 모두 25칸의 규모로 세워졌다. 그 중 온돌이 8칸이며, 동·서·남쪽 3면으로는 뒷간이 있고, 서쪽은 분합문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서남쪽의 각도 3칸이 복내당(福內堂)의 후면에 위치한 서북 행각과 통하게 되어 있어 복내당으로 연결된다.

2)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45

3. 경룡관景龍館

경룡관은 장락당으로 들어가는 누문(樓門)으로, 1794년(정조 18) 행궁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다. 본채는 정면 3칸, 측면 1.5칸 평면으로 조성된 5량 4.5칸 규모이며, 여기에 누문 좌우의 행각 6칸을 더하면 총 10.5칸의 규모가 된다. 경룡관을 세움으로써 혜경궁의 처소인 장락당은 정당한 봉수당과 분리된 아늑하고 작은 앞마당을 갖게 되었다. 2층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고 4면에는 난간을 둘렀다. 경룡관의 1층의 세 칸 출입문은 지락문(至樂門)이라고 하였다.³⁾

〈그림 2-4〉 수원관립건축의 위치 (1911)



4. 유여택維與宅

유여택은 평상시에 화성유수가 거처하다가 임금이 행차하면 머무르며 신하를 접견하는 건물이다. 수원부 읍치를 이전한 이듬해에 복내당 동쪽 행각 밖에 5량 8칸의 동향 건물로 지어졌다. 유여택의 옛 이름은 은약헌(隱若軒)으로 1794년에 은약헌의 지붕을 바꾸고 6칸 반의 온돌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795년에는 유여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듬해에 50칸의 행각이 남북으로 증축되어 전체 78칸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유여택의 앞쪽 뒷마루에 공신루(拱宸樓)라는 누각이 설치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누각과 같은 모습으로 임금이 행차하였을 때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다.⁴⁾

3)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46

4)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pp40-41

5. 복내당福內堂

복내당은 관아의 안채에 해당되는 건물이다. 궁궐에서 ‘당(堂)’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물은 공적인 활동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다. 복내당도 마찬가지로 수원 읍치 이전에 맞추어 내사(內舍)로 세워졌다. 1790년 5량 18칸의 동향 건물로 지어졌고, 을묘년 원행기간 동안 정조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1794년에 증축공사를 하였다. 평소 지방 관아의 안채 외에도 임금의 원행시 침전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복내당은 행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어졌다. 북쪽 온돌방 4칸 반은 장락당 서쪽 행각과 이어지도록 하고, 분합이 설치된 서별당 5칸, 서행각 11칸을 추가로 지어 67칸 반의 규모가 되었다.⁵⁾

6. 낙남헌洛南軒

낙남헌은 1794년 옛 득중정 자리를 노래당 서쪽으로 옮기고 그 터에 새롭게 지어졌다. 궁궐에서 ‘헌(軒)’과 ‘재(齋)’는 왕·왕비 및 왕실 가족 등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공간이다. 그 중에서 ‘헌’은 공무적인 기능을 위해 큰 대청마루가 설치되곤 한다. 낙남헌은 7량 14칸 반의 규모로 대청마루 삼면에 분합을 설치하여 행사시 분합을 모두 올려 마루 공간을 넓게 사용하였다.⁶⁾

〈그림 2-5〉 현재 복원된 낙남헌의 모습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5)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pp41-42

6) 위의 논문, pp.44

7. 노래당老來堂

노래당은 북쪽으로 낙남헌과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득중정과 연결된다. 노래당은 1794년(정조18) 화성행궁을 증축할 때 지은 5량 7칸의 건물로 낙남헌과 득중정에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행사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었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건물이다.⁷⁾

8. 득중정得中亭

득중정은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다. 득중정은 9칸의 규모로 원래는 낙남헌 터에 지어 졌다가 1794년에 현 자리로 옮기면서 증축되었다. 득중정은 낙남헌과 같이 북향의 건물로 노래당와 용마루가 이어져있다. 정당이 5량 13칸이며 득중정 계단 앞에는 어사대(御射臺)를 만들어 벽돌을 깔았다. 득중정에서 화성부의 유생과 무사(武士)들의 시험이 여러 차례 치러졌다.⁸⁾

〈그림 2-6〉 현재 복원된 득중정의 모습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7)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57

8)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pp46-47

9. 신평루新豐樓

신평루는 행궁의 정문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6칸 규모의 2층 누문(樓門)이다. 1층은 3개 널문으로 된 외삼문, 2층은 누마루형태로 지어졌다. 1789년(정조 13)에 신평루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름은 진남루(鎭南樓)였다. 1794년(정조 18) 가을에 남·북군영을 진남루 앞 좌우에 설치하였고, 각각 4칸씩 8칸의 행각을 진남루의 좌우에 붙여서 양익(兩翼)으로 지었다. 1795년(정조 19, 을묘) 혜경궁을 모시는 원행을 준비하면서 신평루로 이름을 고쳤으며, 호조참판 조운형(1725~1799)에게 편액을 쓰게 하였다.⁹⁾

10. 좌익문左翊門

신평루 뒤 중앙문 앞에 있는 행궁의 중삼문(中三門)이다. 정면3칸 측면1칸 규모이며 문 좌우로 행각이 이어져있다. 좌익문은 신평루, 중앙문과 함께 화성행궁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동향을 하였다. 좌익(左翼)은 “곁에서 돕는다.”는 뜻으로 내삼문(內三門)인 중앙문을 바로 앞에서 도와 행궁을 지킨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790년에 완성되었고, 편액은 정동준(?~1795)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썼다. 좌익문의 남쪽 행각 끝은 외정리소로 연결되어 있다.¹⁰⁾

11. 중앙문中陽門

행궁의 내삼문이자 정당한 봉수당의 정문이다. 원래는 중약문(重鑰門)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이를 객사인 우화관(于華館) 정문으로 옮겨 달고 새로 중앙문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1790년(정조 14)에 완성되었으며, 정면3칸 측면1칸 규모이다. 문 좌우로 긴 행각을 두고 있다.¹¹⁾

9)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38

10) 위의 글, pp.539

11) 위의 글, pp.540

제2절 행정 및 군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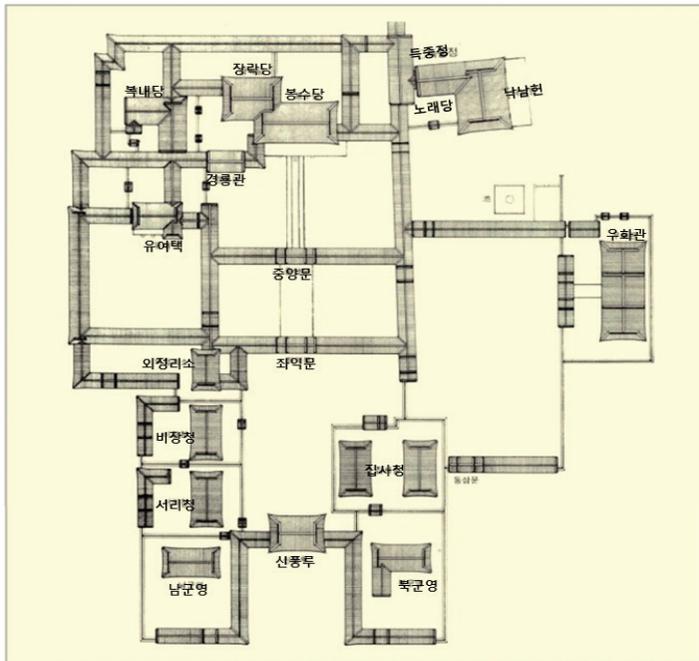
1. 외정리소外整理所

외정리소는 1796년 유여택의 동쪽 행각을 수리하고 빈희문 밖에 터를 닦아 건물을 짓고 편액은 외정리아문(外整理衙門)이라 하였다. 정리소는 정당 5량 6칸에 총 27칸 반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은 헛간, 2층은 다락을 만들어 남향으로 지었다. 원래 정리소는 임금이 행차 도중 유숙하는 곳에 사전에 도착하여 임시로 거처할 곳의 제반사항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다.¹²⁾

2. 비장청裨將廳

비장청은 유수부의 비장(裨將, 지방관을 수행하는 하급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1789년 신축당시 서리청 건물로 세워졌다가 1796년 여름 서리청이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비장청을 새로 지었다. 크기는 정당 및 익랑이 모두 14.5칸 규모이다.

〈그림 2-7〉 화성행궁 지붕평면 계획배치도



자료 : 이상해 (2014) 「화성행궁의 배치와 구조」 『수원시사 17권 수원화성』 pp.525

12)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pp.51-52

3. 서리청書吏廳

서리청은 문서의 기록 및 수령·발급을 담당하는 서리들이 사용하던 아전이다. 서리청은 비장청과 나란하게 그 동쪽에 남향으로 앉혀졌다. 동쪽은 남군영과 접했다. 비장청, 서리청, 남군영은 담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별도의 영역을 이룬다. 원래 서리청은 외정리소 동쪽에 있는 비장청 건물이었는데 1796년(정조 20) 여름에 건물 지붕을 덧입혀 수리하고 비장청으로 쓰게 하였다. 서리청은 그 동쪽의 금도청(禁盜廳)으로 옮겨졌는데, 나중에 이를 헐어내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세웠다. 새로 지은 서리청은 5량 22칸이었으며, 4량 6칸 규모의 창고를 새로 건립하였다.¹³⁾

4. 집사청執事廳

집사청은 화성행궁의 잡다한 사무를 보던 집사(執事)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1789년 좌익문 밖 동북 담장 안쪽에 남향으로 세워졌다. 집사청은 집사(執事)들이 사무를 보던 곳으로 궁권의 액정서(掖庭署)와 같은 역할을 한다. 화성행궁의 집사청은 평소에는 행궁의 잡다한 사무를 담당하던 집사들이 이용하다가 원행기간이나 작헌례를 올릴 때에는 임금을 보좌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⁴⁾

5. 남·북군영南·北軍營

화성을 수비하는 장용외영(壯勇外營)의 기병(騎兵)인 친군위(親軍衛)가 입직숙위(入直宿衛)하던 곳이다. 처음에는 좌·우열로 남군영과 북군영에 각각 100명씩 주둔하였으나, 1789년(정조 22) 장용외영 군영의 개편에 따라 좌·우열을 파하고 1,2,3의 입번(入番)순서를 정하여 매년 각 100명씩 양 군영에 나누어 배치하였다.¹⁵⁾ 초기 신축당시 규모는 군영 24칸이었는데 나중에 좌우 익랑 38칸을 증축하면서 총 62칸 규모가 되었다.

6. 중영中營

중영은 화성유수부 군무(軍務)를 담당하던 중군(中軍)이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중군은 정3품(正3品)의 무관(武官)으로 처음에는 독산성(禿山城)¹⁶⁾의 수성장(守城將)¹⁷⁾을 겸하였다가 1798년

13)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62

14) 위의 글, pp.562

15) 위의 글, pp.559

16)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 26) 권율(權慄)이 왜적을 물리쳤던 산성,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

17) 산성(山城)에 머무르며 수성군(守城軍)을 이끌고 성을 지키던 무관(武官)의 벼슬

외군총제(外軍總制)를 개정하면서 토포사(討捕使)¹⁸⁾와 친군위 별장(別將)¹⁹⁾을 겸하였으나 독산성에 별장을 감하(減下)²⁰⁾하였다. 1801년 화녕전의 위장(衛將)²¹⁾을 겸하였고 1802년에는 친군위 별장을 감하하고 다시 토포사를 겸하였다. 1899년 작성된 『수원군읍지』 관해(官廡)조항에는 ‘中營 在十字街東北 正宗戊午建 今爲地方營’²²⁾이라 기록되어 있다. 중영의 건립시기는 1798년이고, 규모는 미상이지만 중군이 수원관판보다 품계가 높기 때문에 이아(貳衙)와 비슷한 규모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899년 읍지 편찬 당시 이미 중군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군대(地方營)으로 바뀌었다.²³⁾

7. 강무당講武堂

강무당은 화성 내에 주둔하는 장용외영(壯勇外營)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다. 1789년(정조 13)에 세웠다. 편액은 훈련대장 서유대(1732~1802)가 썼고, 상량문은 1796년(정조 20)에 대호군 이병정(1742~1804년)이 지었다. 1792년 무렵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에는 16칸으로 되어있는데, 『화성성역의궤』에는 7량 14칸으로 기록되어있다. 1794년(정조 18) 가을에 행강 26칸을 증축했으며, 군사들의 점호가 있거나 재주를 시험할 때에 모두 이 곳에 집결하였다.²⁴⁾

8. 군기고軍器庫 (무고武庫)

무고는 1789년(정조 13)에 세운 병기 창고이다. 1794년(정조 18)에 증축하였다. 행궁을 지키는 병사들의 병장기(兵仗器)를 비롯하여 화약 및 장류(醬類)를 보관하였다. 대청이 6칸이고 그 주위 3면에는 40칸의 행각이 있어 군기고(軍寄庫)로 쓰였다. 2층이었는데, 위층은 다락이고 아래층은 공간이다. 오른편은 강무당 북쪽과 이어져 있었으며, 왼편 15칸은 수성고(修城庫) 동쪽 뜰과 이어져 있었다. 담장 밖으로 장고(醬庫)를 별도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장고의 북쪽과 수성고 사이에는 화약고(火藥庫)가 있었다.²⁵⁾

18)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鎭營將)에게 겸임시킨 특수관직

19) 조선시대 지방의 산성·나루 등의 수비를 맡은 종9품의 무관직

20) 벼슬아치의 수를 줄임

21)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22) 중영은 종로사거리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조22년(1798년)에 건립되었고, 현재 지방군대이다

23) 기전문화재연구원(2005) 「수원 화성내 미복원 시설 지표조사 및 고증연구 보고서」 pp28

24)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63

25) 위의 글, pp.564

9. 수성고修城庫

수성고는 외정리소 부속기관이다. 성곽을 비롯한 화성의 각종 건물이 낡고 허물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성을 지키는 기계, 그리고 돈과 양식을 쌓아두기 위해 설치하였다. 1796년(정조 20) 여름 화성 성역이 끝날 무렵에 무고(武庫) 북쪽에 지었으며, 대청은 5량 4.5칸이고 북쪽에 3칸을 붙이 건물이다. 앞면은 위는 다락, 아래는 곳간이며, 무고와는 용마루가 이어져 있다. 서쪽으로 좌고(左庫) 11칸이 있었다.²⁶⁾

제3절 기타 영역

1. 화령전華寧殿

화령전은 화성행궁의 서북쪽, 낙남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정조의 뒤를 이어 등극한 순조가 1801년(순조1) 아버지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추모하기 위해 세운 어진봉안각(御眞奉安閣), 즉 영전(影殿)이다. 화령전은 정조 서거 이듬해인 1801년 1월에 건립을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4개월만에 완공되었다. 낙남헌에서 북쪽으로 79보, 강무당에서 남쪽으로 77보되는 지점에 세워졌다. 화령전은 내삼문(內三門)과 외삼문(外三門), 그리고 그 뒤에 정조의 초상을 봉안한 운한각(雲漢閣)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전인 운한각은 정면 5칸, 측면 3칸반 규모이다.²⁷⁾

2. 이아貳衙

이아는 화성유수를 보좌한 수원판관이 주재했던 관청이다. 1793년 8월에 건립돼 민원 가운데 작은 것은 이아에서 처리하고, 큰 것은 유수부가 해결하는 체계가 만들어 졌다. 이아의 위치는 행궁의 북쪽에서 동편으로 가까이 있고, 계축(정조 17, 1793)년에 판관(判官)을 설치한 뒤에 세웠다.²⁸⁾ 이아 터에 대한 유적 발굴 조사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다.

26)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64

27) 위의 글, pp.567

28) 『수원군읍지(水原君邑誌)』, 광무 3년(1899)

3. 우화관于華館

우화관은 화성유수부의 객사(客舍)이다.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고 한달에 두 번 배례(拜禮)하며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숙소로 이용하거나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곳이다. 화성행궁은 팔달산을 주산으로 하여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관청이 대부분 동향을 하고 있으나, 우화관은 남향으로 놓였다.

일반적으로 읍치에서 객사는 가장 위계가 높은 시설이어야 하지만 화성에는 봉수당(奉壽堂) 등 왕이 직접 이용하는 행궁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화관은 객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심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조선시대 객사의 건축형식 대로 정면 3칸이 정청, 그 좌우에 익사를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우화관도 이러한 형식으로 지어졌다. 좌우 익사에는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묵을 온돌방을 설치하였다.²⁹⁾

〈그림 2-8〉 화녕전의 운한각 (1929)



자료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29)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65-566

제3장 수원관립건축의 변용 과정

제1절 항공중심 영역

제2절 낙남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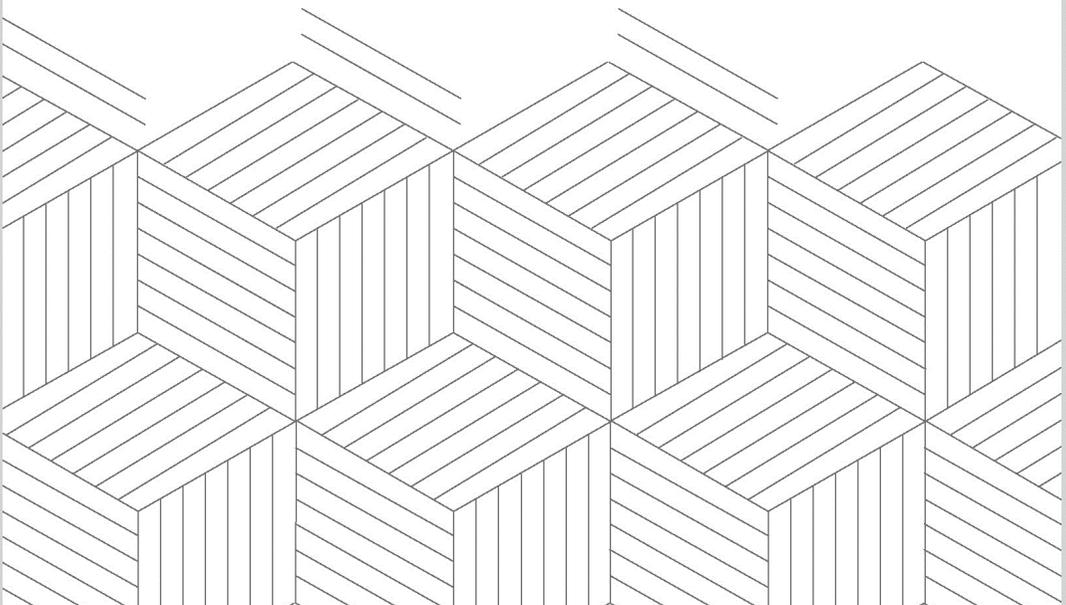
제3절 우화관

제4절 남·북군영

제5절 강무당

제6절 이아

제7절 중영



제3장 수원관립건축의 변용 과정

제1절 항공중심 영역

1. 경기관찰부의 이전과 자혜의원 설치

1910년 9월 5일에 화녕전을 병원 원사로 사용하는 수원자혜의원이 개원하였고, 전사청(典祀廳)과 풍화당(風化堂)도 병원 건물로 활용하였다. 풍화당은 1병실로 전사청은 서무·약제·치료과 및 숙직실로, 그 부속건물은 2병실로 사용하였다. 전사청의 경우 약 61평, 그 외 병실은 모두 합쳐 11평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³⁰⁾

〈그림 3-1〉 19세기 후반 화성도병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30)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 근대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pp282-284

당시 봉수당 중심으로 한 행궁영역은 경기도 관찰부가 있었으나, 1910년 10월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서 1911년 5월 28일에 화성행궁자리에 수원자혜의원이 이전했다. 화성행궁의 정전이었던 봉수당을 병원 본관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1925년에 경기도립의원으로 개칭하고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 자리가 병원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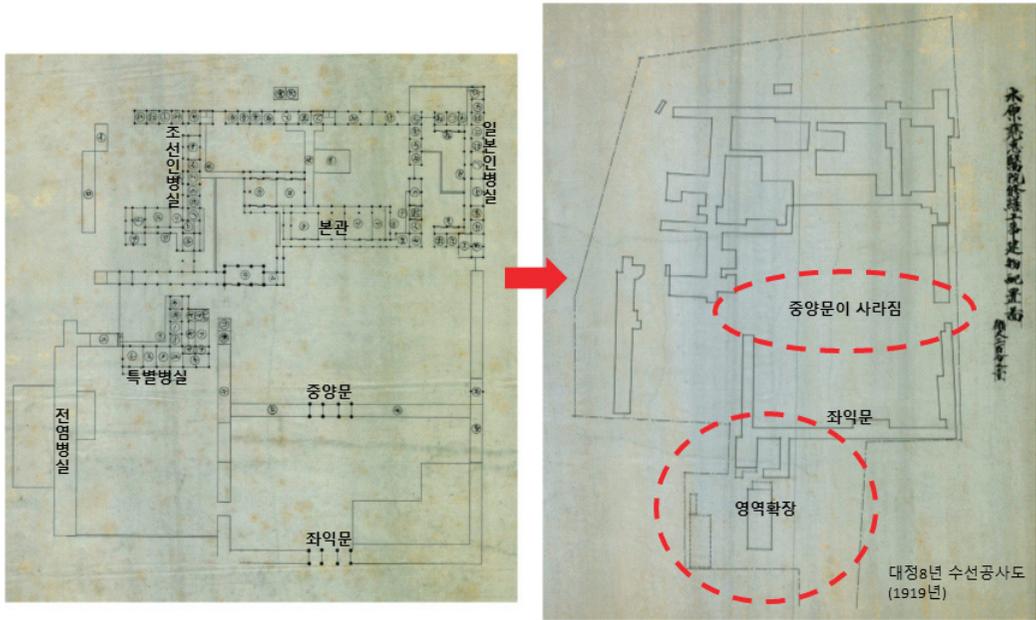
1914년 당시의 사진을 보면 본관으로 사용하였던 봉수당과 그 앞의 중앙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기존 행궁건물을 그대로 사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행궁건물은 필요에 따라 조금씩 수선·증축·철거를 하며 훼손되어갔다. 초기 병원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봉수당 본관을 중심으로 양측에는 일본인 병실과 조선인 병실을 분리하여 배치하였고, 특별병실과 전염병실도 두어 병실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1910년대 수원자혜의원의 변화양상을 보면 먼저 봉수당 앞에 있던 중앙문이 사라지면서 병원 중심에 넓은 마당이 생겼다. 또 병원의 정문 역할을 했던 좌익문 앞으로 병원 부지가 일부 확장되었다. 1921년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전염병동 주변으로 벽을 설치하여 격리시켰고, 정문 앞 병원부지가 일부 축소되었다. 그 외에도 일부 건물이 부분적으로 확장·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행궁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림 3-2〉 수원자혜의원 봉수당과 중앙문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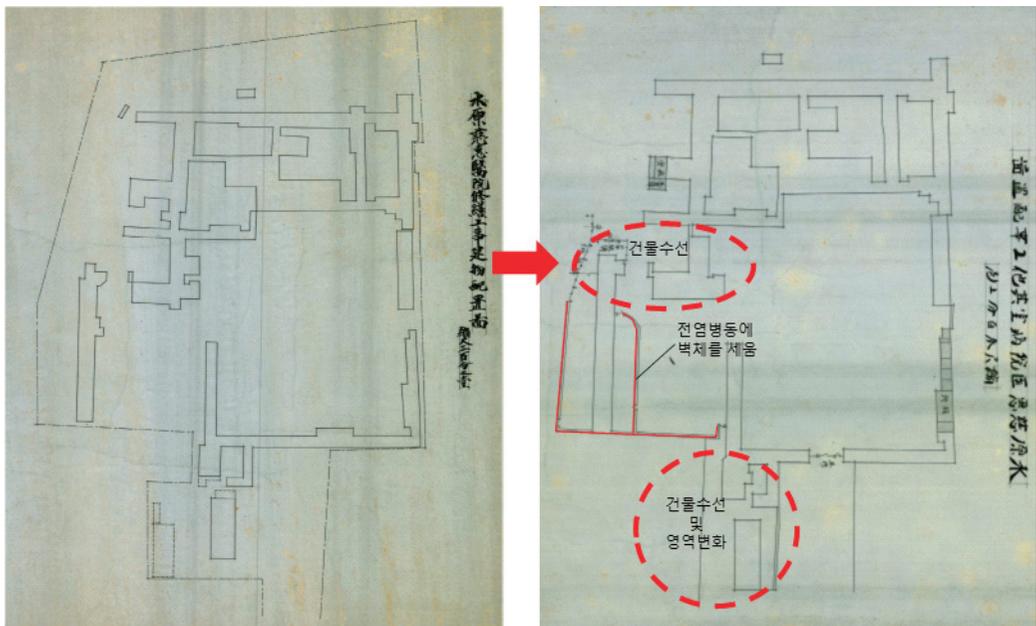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0월 19일 1264호 2면

〈그림 3-3〉 수원자혜의원 배치도 1910년대(추정, 좌)와 1919년(우)



자료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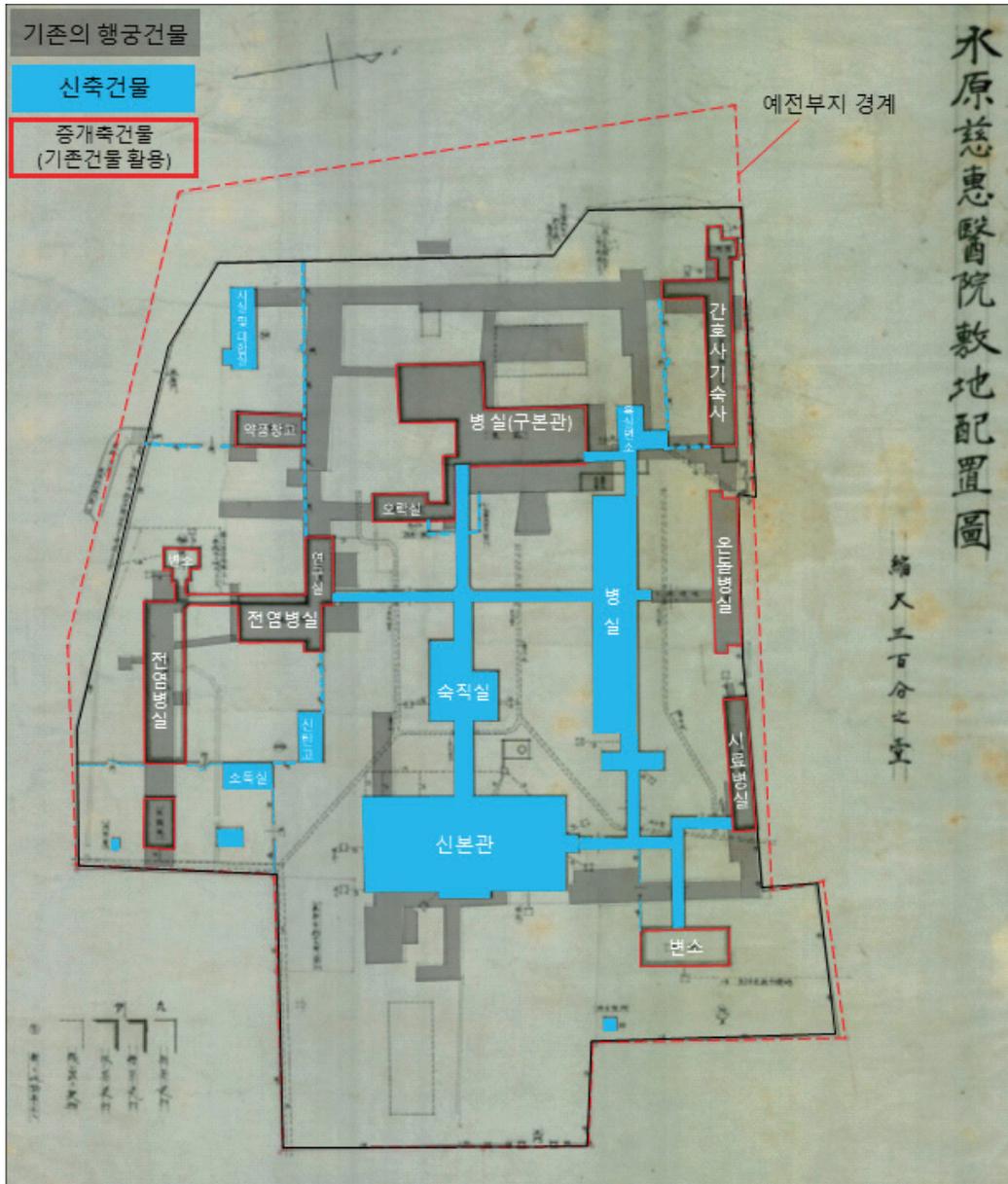
〈그림 3-4〉 수원자혜의원 배치도 1919년(좌), 1921년(우)



자료 : 국가기록원

2. 1923년 신본관 개축 이후의 변화

〈그림 3-5〉 수원자혜의원부지배치도면 (1923)



자료 : 국가기록원

행궁건물이 대부분 철거된 시기는 1923년 본관 건물을 신축하면서였다. 당시의 수원 자혜의원부지 배치도면을 보면 일부 건물 몇 채만 남기고 대부분의 행궁건물은 헐어버리는 계획이었다. 신축한 건물은 신본관과 건물 뒤로 연결되는 직원용 건물과 일반병실 등이다. 배치도 중앙에 각 건물을 연결하는 십(十)자형의 복도는 건물간의 이동 시 효율성을 높이면서 전체 배치도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수원 자혜의원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의 본관이었던 봉수당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본관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치도를 살펴보면 봉수당 건물은 그대로 두고 좌익문 부근에 신본관이 들어서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보면 1914년에 봉수당과 중앙문이 함께 찍힌 사진과 1923년 신본관과 정문이 같이 찍힌 두 사진이 비슷한 구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만 보면 봉수당은 신본관으로 바뀌고, 중앙문은 벽돌조의 벽과 철문을 가진 근대식 정문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923년 수원자혜의원 배치도를 보면 봉수당은 헐리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다.

수원자혜의원의 배치도에서 신본관 후면으로 연결되는 십(十)자형의 복도는 각 건물을 연결하는 역할 뿐 아니라 병원 전체 배치도에서 중심축이다. 이러한 방식의 설계는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 설계된 자혜의원 신축설계도면에서도 모두 발견되는 공통부분이다. 중앙 복도-본관입구-정문까지 이르는 중심축은 나남자혜의원이나 군산자혜의원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자혜의원에서도 모두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자혜의원의 경우 복도와 본관입구는 일직선상에 있지만 정문의 위치는 옆으로 약간 비껴있다. 다른 지역의 자혜의원과 다르게 수원자혜의원만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신본관과 함께 새롭게 지은 정문은 신평루의 위치와 일치한다. 이로 인해 정문의 위치가 십(十)자형복도-신본관 현관의 중심축과 다른 것이었다.

〈그림 3-6〉 1914년 수원자혜의원(좌)과 1923년 수원자혜의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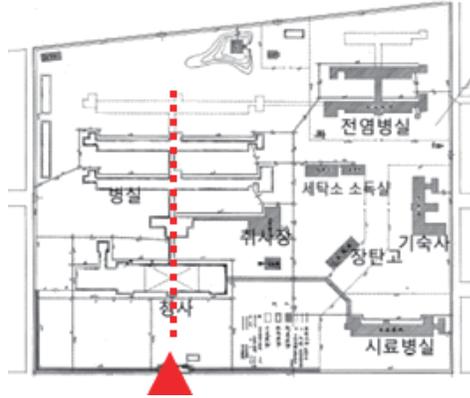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7〉 군산자혜의원의 배치도 (1921)



〈그림 3-8〉 남남자혜의원의 배치도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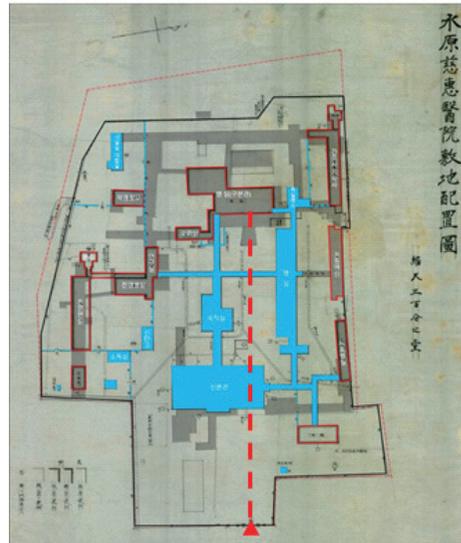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9〉 화성행궁



〈그림 3-10〉 수원자혜의원 배치도(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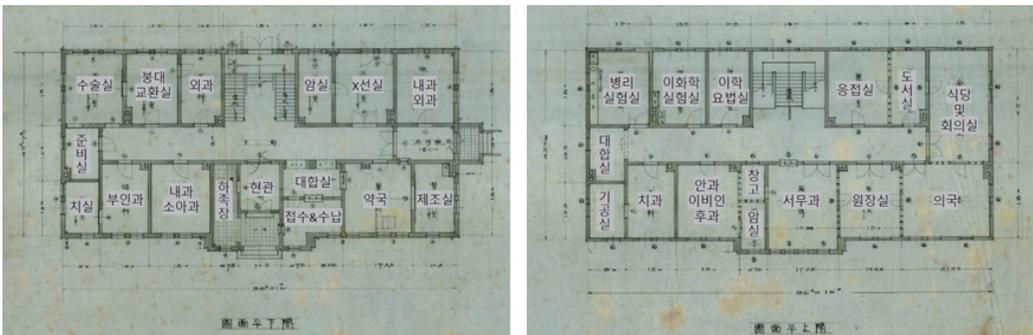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1923년 신본관을 비롯한 대대적인 수원자혜의원의 개축공사로 인해 대부분의 행궁건물은 헐려나갔고, 그 중에서도 행궁의 삼문(三門)인 신평루, 좌익문, 중앙문은 완전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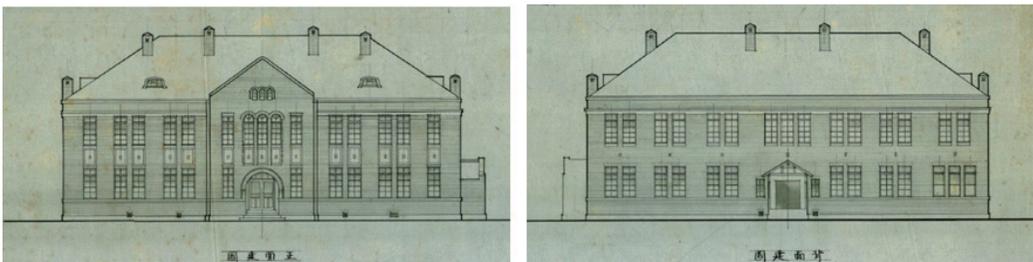
신본관의 평면을 자세히 보면, 두 개 층으로 이루어진 본관은 중앙에 1층 현관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있고, 양 옆으로 각 분야별 진료 분과가 배치되어 있다. 2층에는 병원원장실 및 의국, 식당 및 회의실, 도서실, 병리실험실, 이화학실험실, 이학요법실 등 의사들을 위한 공간과 일부 진료 분과가 배치되어 있다. 신본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벽돌 건물로 알려져 있지만 단면도를 보면 건물 전체는 목구조로 되어 있고, 외장재를 벽돌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계획 방식은 보기 드문 특이한 사례로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던 형식이다. 좌우로 긴 장방형의 건물로 전면 중앙 현관부분은 돌출시키고 상부에 박공을 구성하여 장식하였다. 출입문과 상부의 창문에는 원형아치로 꾸며 입면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지붕에는 돌출창을 두었고 난방을 위한 벽난로 굴뚝이 곳곳에 솟아 있다.³¹⁾

〈그림 3-11〉 수원자혜의원 신본관 평면도 1층(좌), 2층(우)



자료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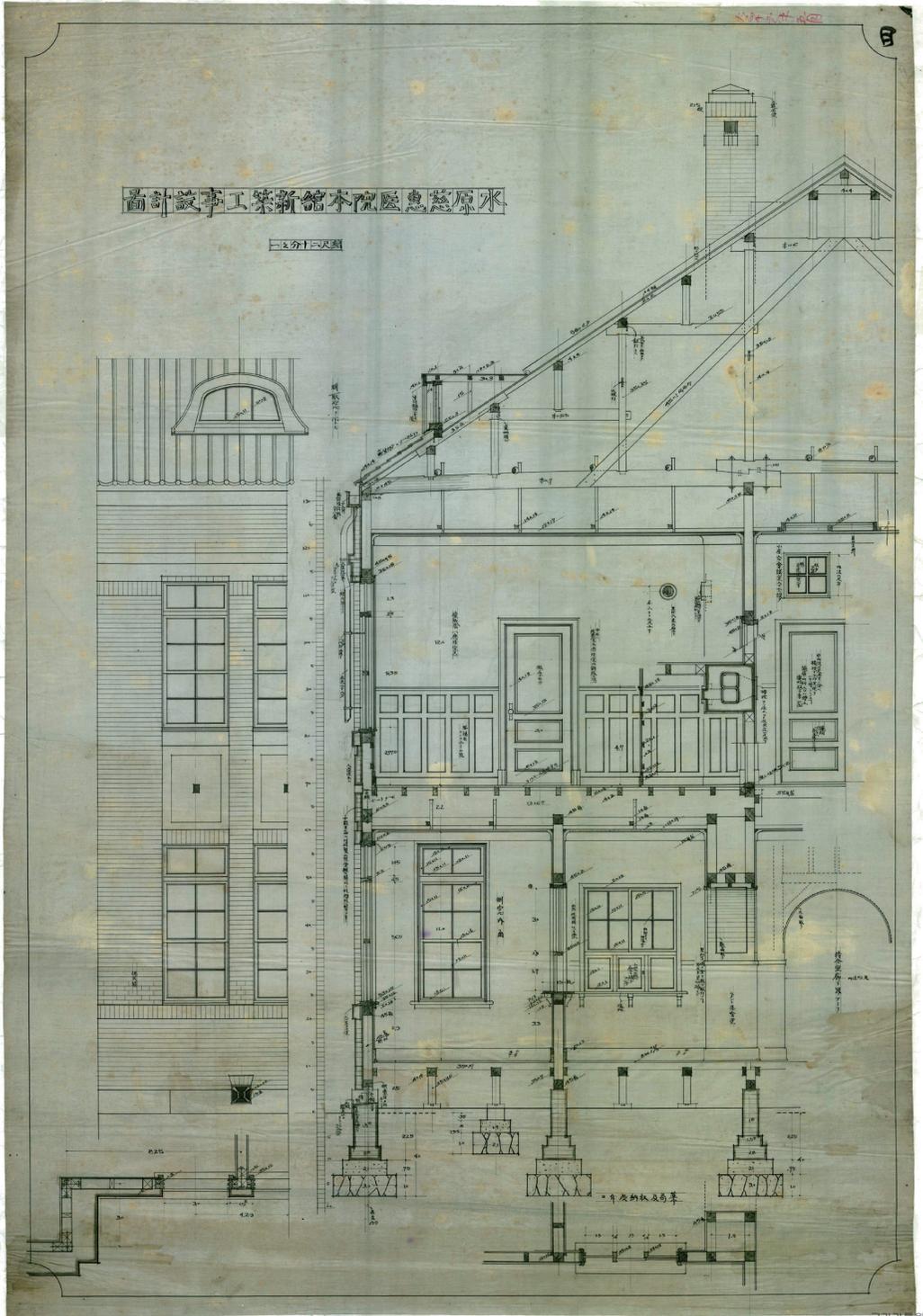
〈그림 3-12〉 수원자혜의원 신본관 입면도 전면(좌), 배면(우)



자료 : 국가기록원

31)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medical.do?flag=9> (일제시기 도면 컬렉션 주제별 해제)

〈그림 3-13〉 수원자혜의원 본관 신축공사 설계도 : 단면도 (1923)



자료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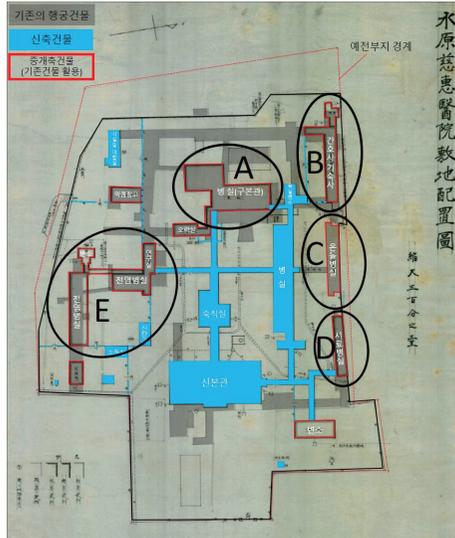
〈그림 3-14〉 경기도립수원의원(舊 수원자혜의원) (1929)



자료 :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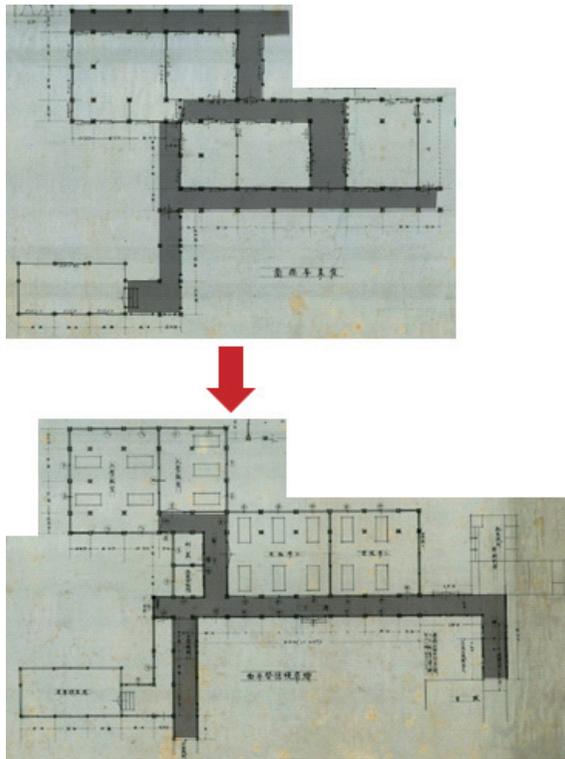
신축건물 외 기존 행궁건물을 계속해서 활용한 건물을 살펴보면 크게 봉수당, 전염병실, 간호사숙소, 온돌병실, 시료병실이 있다. 봉수당은 원래 본관으로 사용하다가 신본관 건축 이후로 4개의 병실을 갖춘 일반병실 건물로 바뀌었다. 3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로 총 4개의 병실을 갖추었다. 복도 면적을 최소화하여 병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일본인 병실로 사용되었던 곳은 간호사 기숙사로 개조되었다. 남쪽에 위치했던 복도의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고 각 실의 크기를 일정하게 개조하였다. 온돌병실과 시료병실은 모두 침대가 없는 온돌실로 이루어졌으며, 각 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게 바뀌었다. 시료병실에서는 처마 밑으로 복도를 덧달아내 건물을 확장하는 계획을 볼 수 있다. 전염병실은 원래 특별병실로 사용 하였던 유여택일곽 건물이었다. 그러나 전염병실 전용으로 바꾸면서 건물 주변으로 벽을 쌓아 올렸다. 전염병실 특성상 1인 병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기존건물을 활용한 경우를 보면 벽체를 이동하여 각 실의 크기를 필요에 맞게 조정하였고, 복도공간을 최소화하고 각 실을 크기를 확장하였다.

〈그림 3-15〉 수원자혜의원 배치도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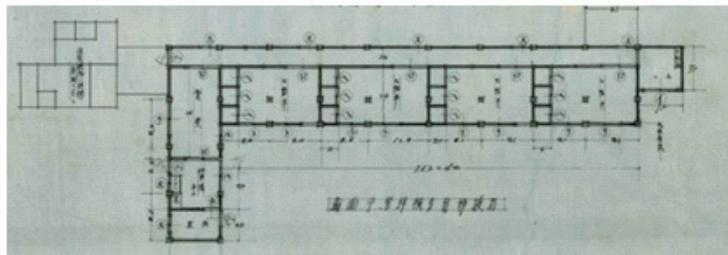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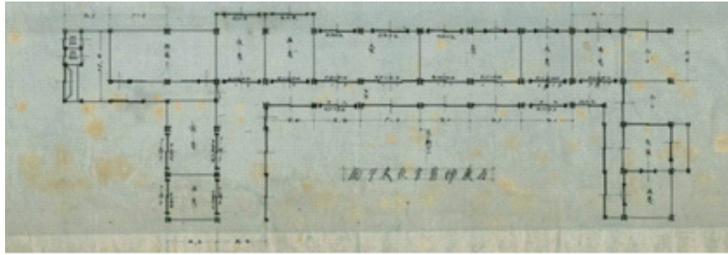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16〉 A : 본관에서 병실로 변경된 봉수당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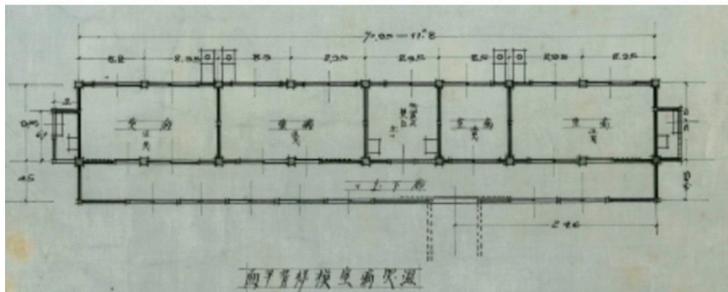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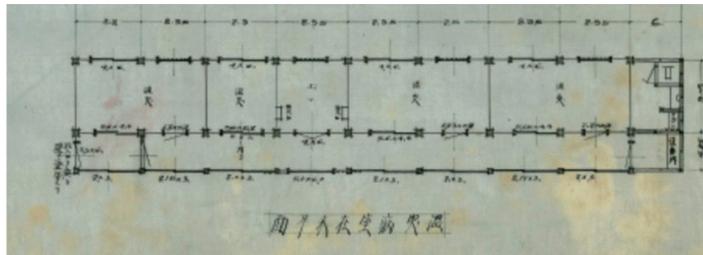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17〉 B : 일본인병실에서 간호사기숙사로 변경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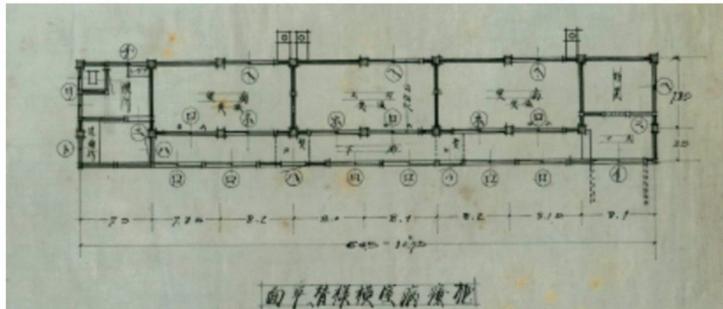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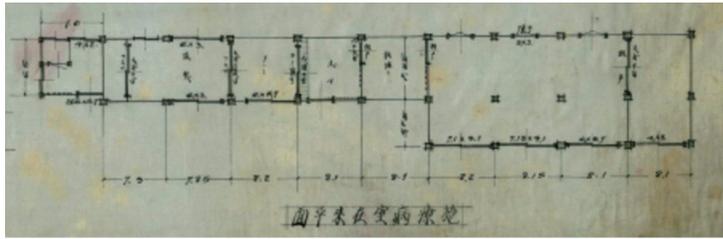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18〉 C : 온돌병실의 개조 전후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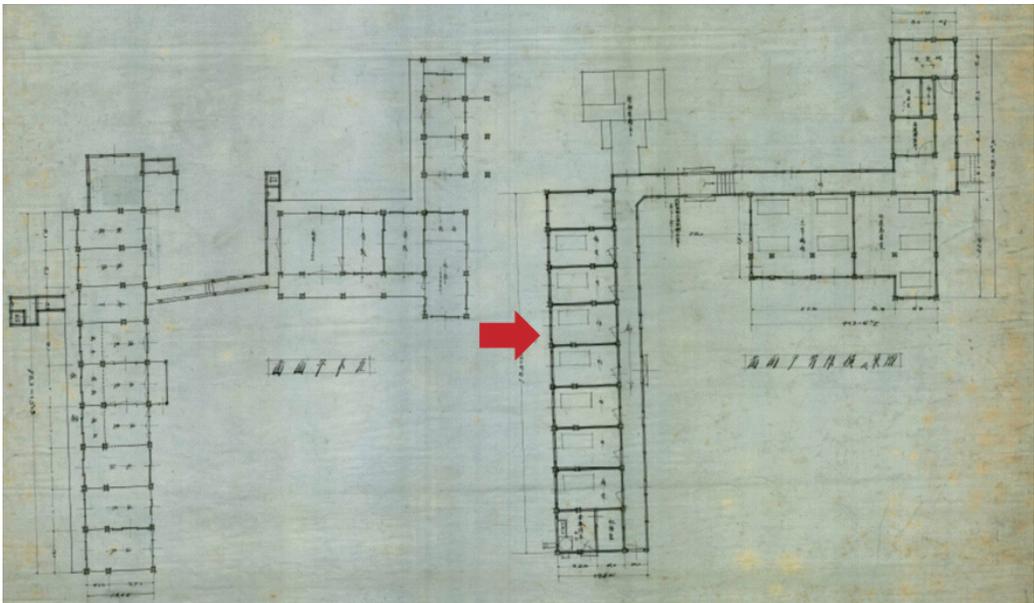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19〉 D : 시료병실의 개조 전후 (1923)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20〉 E : 전염병실 개조 전후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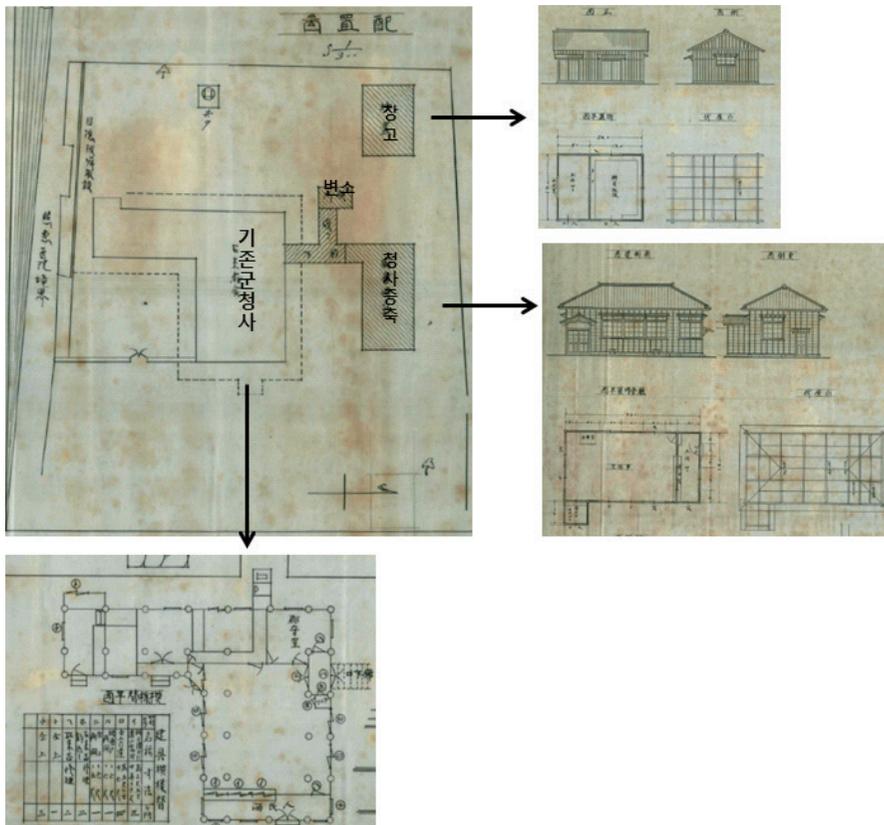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22〉 19세기 후반 화성도병(좌)과 1911년 수원지적도(우)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좌) / 수원화성박물관 (우)

〈그림 3-23〉 수원군청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 (1910년대)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24〉 수원군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남헌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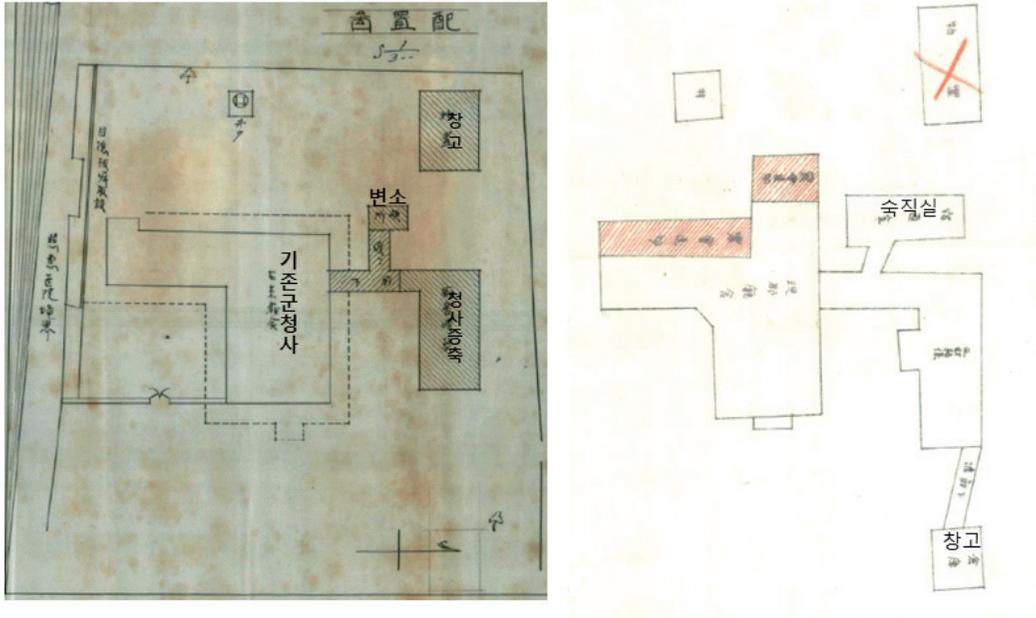


자료 :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1929

낙남헌은 원래 정면5칸 측면4칸 규모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측면에 포치를 설치하여 입구로 하였다. 행정업무에 맞는 공간적 변화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외부의 틈간을 모두 막아 내부공간으로 만들었고 유리창을 설치하였다.³²⁾ 외벽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증축한 건물은 복도로 연결되어있고, 뒤편으로 창고도 새로이 지었다. 증축건물과 창고 모두 외벽은 같은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단층의 목구조 건물이다. 1910년대에는 수원군청사 북쪽으로 복도로 연결시킨 건물과 수원군청사 뒤편에 창고건물을 증축하였다. 복도 중간에는 변소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개축이 일어났다. 1920년대 자료는 없으나 수원군청이 이전하던 시기인 1938년 당시의 배치도를 보면 수원군청사(낙남헌 건물)를 확장하였고, 변소로 사용되었던 곳은 개조하여 숙직실로 바뀌었다. 1910년대에 증축되었던 건물도 일부분 확장되었고, 창고도 하나 더 생겨서 복도로 연결되어있었다. 즉, 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은 2채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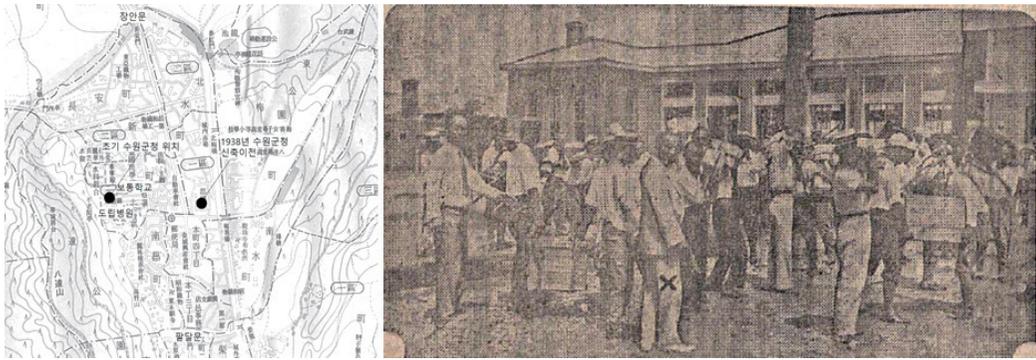
32) 김재국(2014) 「수원시사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 근대건축의 입지와 발달」, pp.162

〈그림 3-25〉 1910년대(좌)와 1938년(우)의 수원군청 배치도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26〉 수원군청의 위치변화(좌)와 수원군청 신청사(우) (1938)



자료 : 국가기록원

수원군청은 1938년 8월 1일자로 신축이전한 신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신축이전한 곳은 중영 자리로, 1938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895년부터 1938년까지 낙남헌을 사용했던 수원군청의 역사는 마감하였다.

2. 수원토목관구

1916년에 토목관구가 수원에 설치되었다. 토목관구는 토목공사를 감독하는 기구로 초기의 토목관구는 수원군청과 함께 낙남헌을 사용하였다. 토목관구 설립당시 명칭은 ‘경기도제2 토목관구’로 소재지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할지역은 수원군 외 시흥군, 부천군, 인천부, 용인군, 진위군, 안성군이었다. 1921년에는 소재지에 따라 명칭이 ‘수원토목관구’로 바뀌었고, 관할지역도 일부 변경이 되었다. 수원군 외 용인군, 안성군, 진위군 까지 이전과 같고, 부천군과 시흥군의 일부지역이 경성토목관구 관할로 바뀌었다.

〈표 3-1〉 1916년 경기도 토목관구 관할지역

명칭	소재지	관할지역
京畿道第一土木管區	경성부	경성부, 고양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강화군, 김포군
京畿道第二土木管區	수원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인천부, 용인군, 진위군, 안성군
京畿道第三土木管區	이천군	이천군, 여주군, 광주군, 양평군
京畿道第四土木管區	양주군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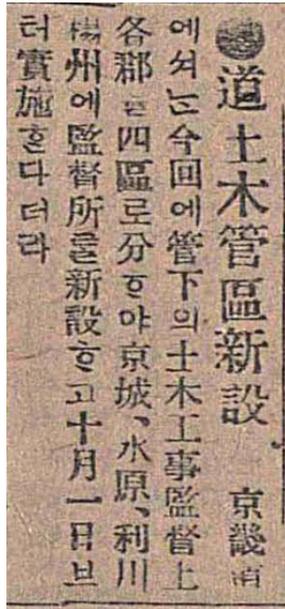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0월 19일 1264호 2면

〈표 3-2〉 1921년 토목관구 관할지역

명칭	소재지	관할지역
京城土木管區	경성	경성부, 인천부, 고양군, 시흥군북면 및 영등포면,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水原土木管區	수원	용인군, 안성군, 진위군, 수원군, 시흥군(북면 및 영등포면 제외)
利川土木管區	이천	광주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議政府土木管區	의정부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9월 28일 2740호 2면

〈그림 3-27〉 매일신보 1916년 10월 1일자 기사



자료 : 『毎日申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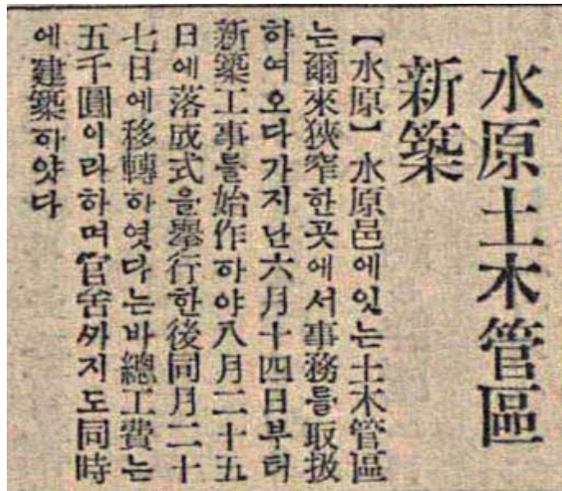
〈그림 3-28〉 수원군청과 토목관구 (1923)



자료 : 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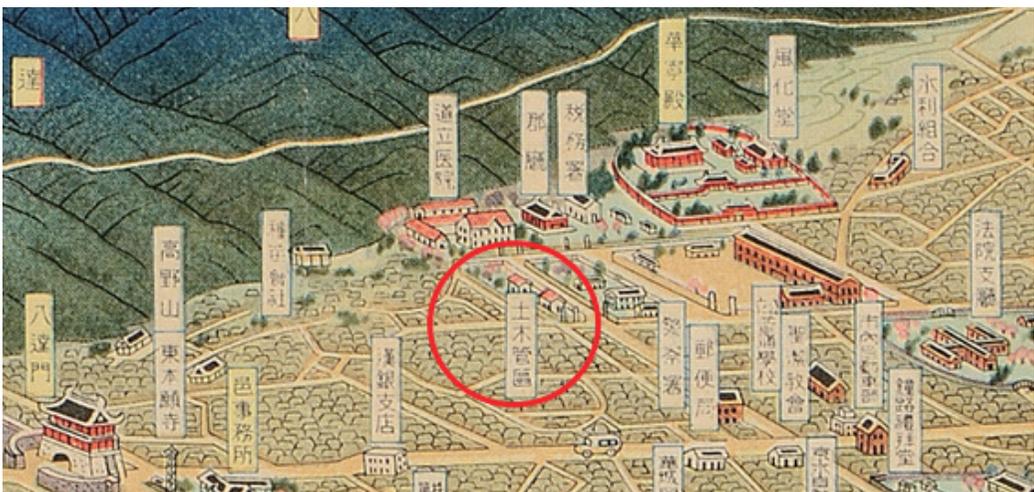
토목관구가 정확히 낙남현의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1910년대에 증축한 건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목관구는 공간부족으로 1932년에 신축이전을 하였는데,³³⁾ 이전한 위치가 경기도립수원의원(옛 수원자혜의원)앞에 위치한 남군영 자리이다. 1936년 수원의 그림지도를 보면 경찰서(북군영 자리) 옆에 토목관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9〉 매일신보 1932년 9월 4일자 기사



자료 : 『每日申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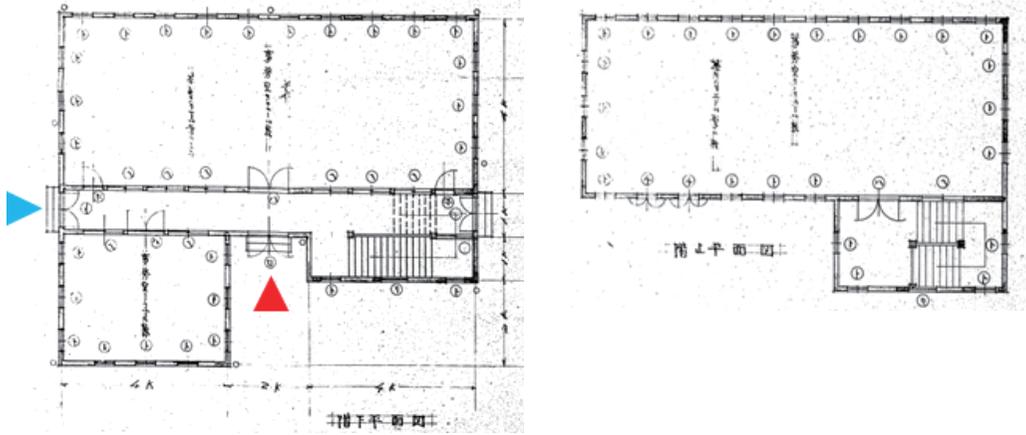
〈그림 3-30〉 「관광의 고도, 수원」 (1936)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33) 매일신보 1932년 9월 4일자 기사

〈그림 3-32〉 광주토목관구 사무실 증축공사 평면도 1층(좌), 2층(우) (1931)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33〉 광주토목관구 사무실 증축공사 정면도(좌), 측면도(우) (1931)



자료 : 국가기록원

3. 수원세무서

1934년 5월 그동안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던 내국세 부과 징수 업무를 독립적 세무기구로 분리시키면서 조선총독부 세무관서를 전국 각 지역에 설치하였다.³⁷⁾ 수원세무서는 수원군청과 함께 있던 토목관구가 1932년에 신축이전으로 비어있던 곳을 사용하였다.

〈그림 3-34〉 조선신문 1934년 5월 20일자 기사



자료 : 『朝鮮新聞』

〈그림 3-35〉 수원군청과 수원세무서 (19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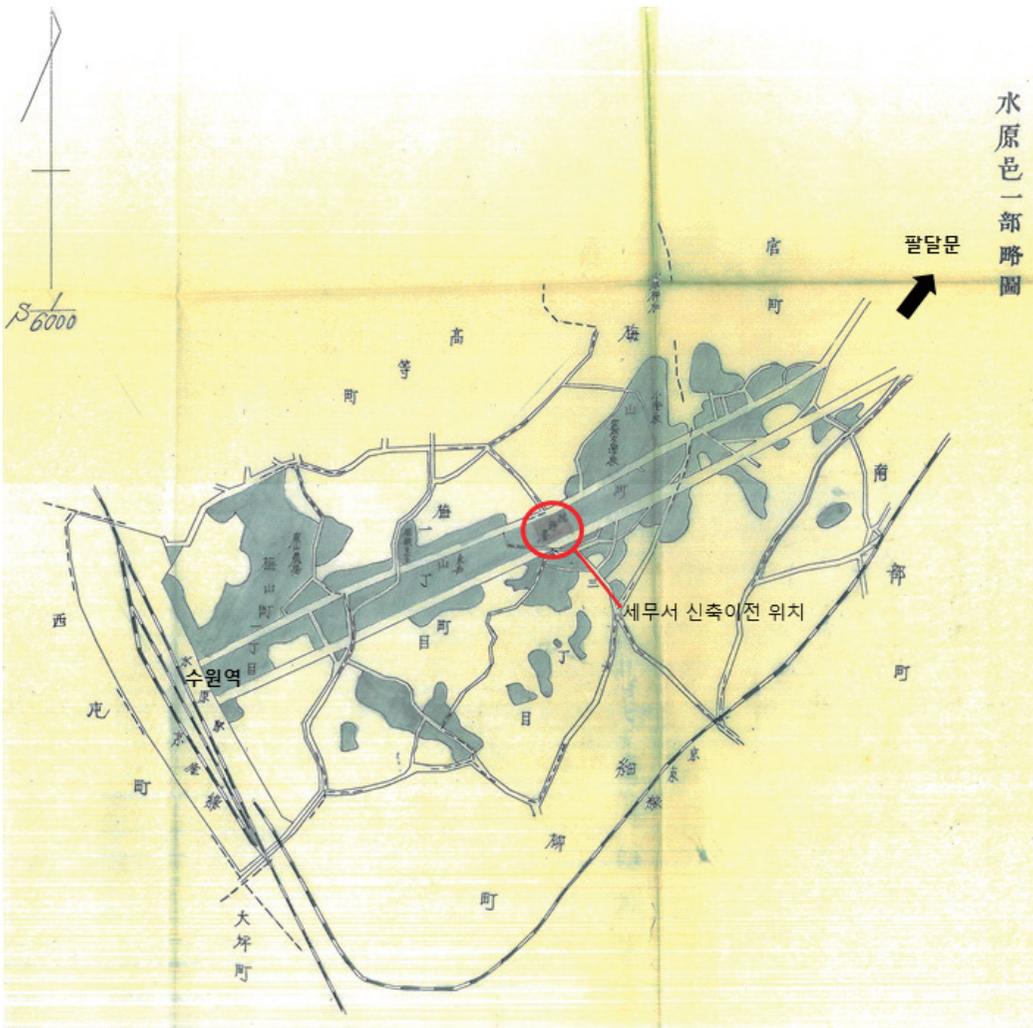


자료 : 2013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옛 수원 사진전(1900-1960) - 렌즈 속, 엇갈린 시선들' 전시도록

37) 손낙구(2015)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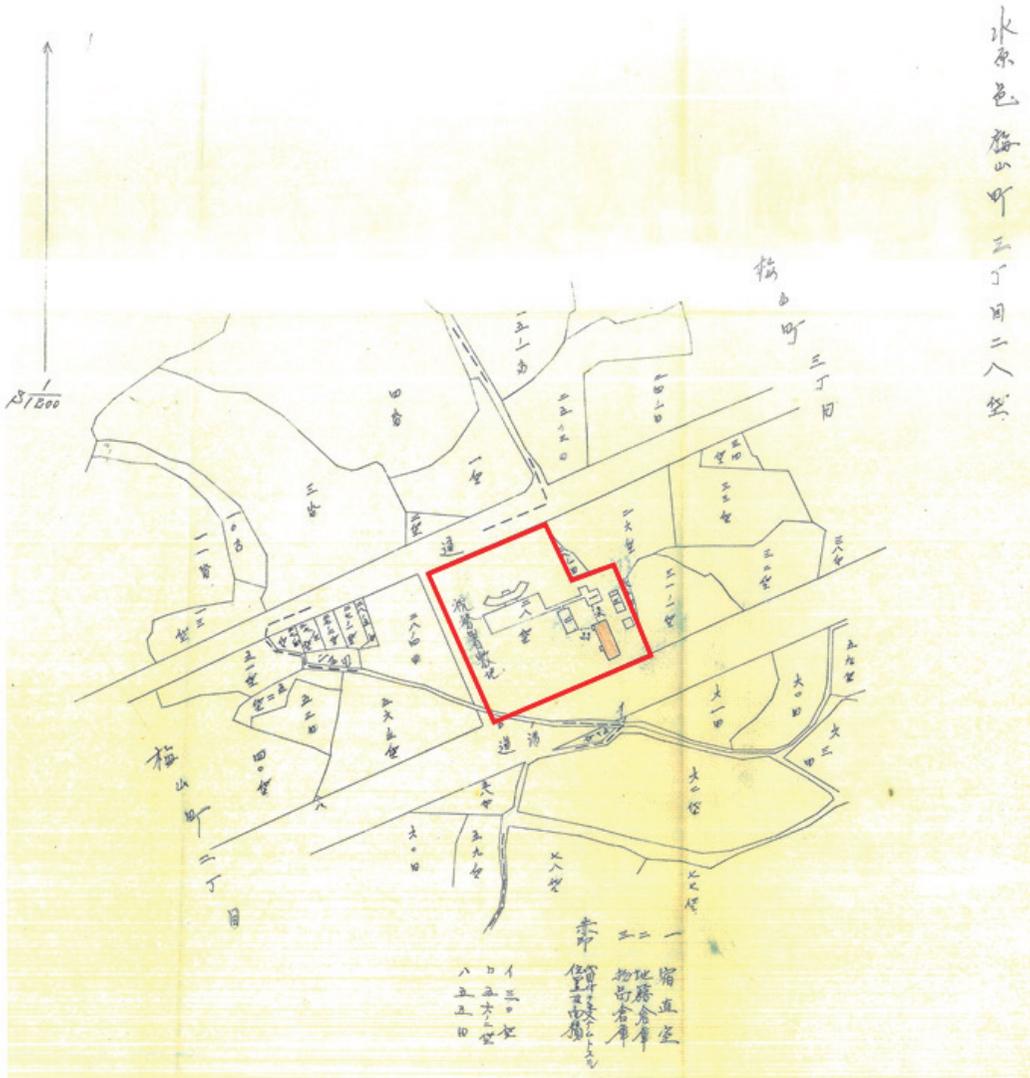
1936년 수원그림지도에서는 수원군청과 함께 수원세무서가 함께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이 후 '수원세무서 청사 기부채납 문서(1938)'에 첨부된 지도에 신축 이전한 수원세무서의 위치를 보면 팔달문에서 수원역을 잇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주소는 수원읍 매산정3정목 28번지이다. 배치도를 보면 건물 입구에는 자동차 진입로가 있으며, 건물의 정면은 1930년대 건설된 신작로가 아닌 1900년대 초 수원역 건설당시에 지은 팔달문-수원역 구간의 도로로 향해 있다.

〈그림 3-36〉 수원읍일부약도 세무서 위치 (1938)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37〉 수원읍 매산정3정목 28번지 수원세무서 배치도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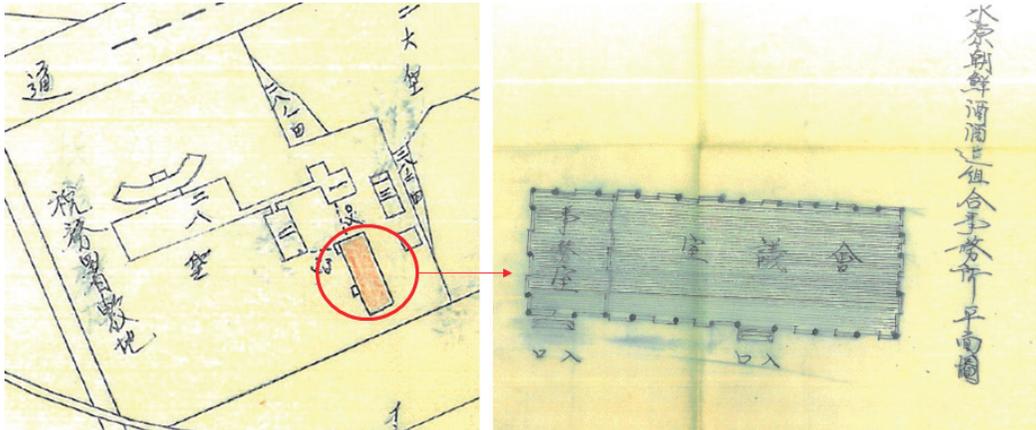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당시 세무서의 상세한 설계도 자료는 없으나 공간구성은 1934년의 세무서신축공사 설계도 공통도면과 흡사 할 것으로 짐작된다. 수원세무서의 현재위치는 1938년 신축이전을 했던 세무서의 위치와 일치한다. 본관건물 뒤에 있는 붉은색 표시된 건물은 '수원조선주주조합 사무소(水原朝鮮酒酒組合事務所)'에 임대해주었다.³⁸⁾ 수원조선주주조합회사 사무소로 임대 해준 건물의 평면도를 보면 사무소와 회의실 두 개 실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다.

38) 수원세무서 부지의 일부를 '수원조선주주조합사무소'부지로서 준대부에 관한 건 (1938), 국가기록원

〈그림 3-38〉 수원세무서 배치도(좌) 및 수원조선주주조합회사 사무소 평면도(우)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39〉 수원세무서 이전 위치(좌) (1943)와 현재 수원세무서 위치(우) (2019)



자료 : 1943년 수원읍지도, 수원역사박물관 소장(좌) / 2019년 현재 수원세무서 위치, 네이버지도(우)

4. 수원도서관

수원군청과 수원세무서가 1938년에 신축이전을 하고 낙남헌은 비어진 건물이었다. 이 후 이 곳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1943년 수원읍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도에서는 ‘도서관(圖書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워진 낙남헌 건물은 도서관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0〉 수원읍지도 (1943)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1938년 수원군청과 수원세무서가 이전하고 나서 수원읍에서는 비어있는 옛 수원군청 건물을 수원읍도서관으로 용도를 바꾸고 그 주변을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³⁹⁾ 1939년 구 군청사 건물정리 배치도를 보면 건물 일부가 철거 되는데 1910년대에 지어진 증축건물과 뒤편에 있던 창고가 함께 철거되었다. 그러나 정문가까이에 있던 창고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낙남헌 건물도 일부 축소되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확장시켰던 부분을 다시 철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도서관이라는 용도에 맞게 건물을 수선하면서 건물의 입구가 바뀌었다. 도서열람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출입구를 바꾸어 이동 동선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원래의 현관은 창고로 바뀌었다. 평면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개로 나뉘었던 각 실들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내부공간에 가벽을 세워 가운데 열람실을 ㄷ자로 둘러싼 복도를 만들었다. 수원도서관은 1940년 5월 1일에 개관하였고, 수원시민을 위한 최초의 공공 도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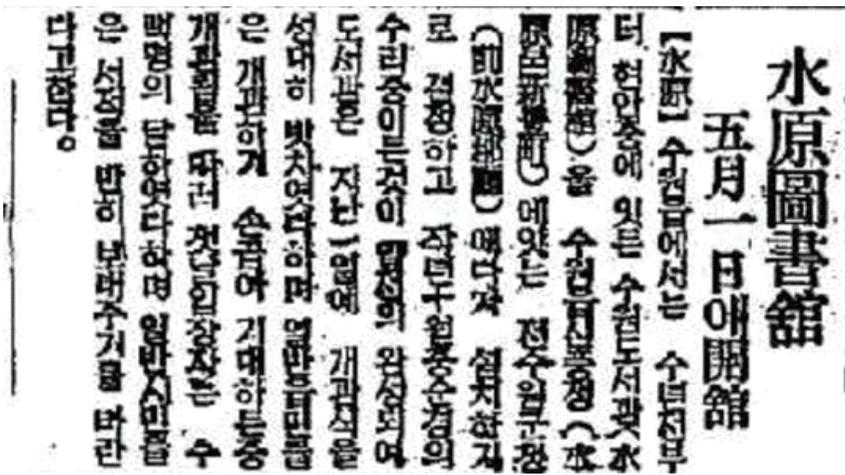
39) 매일신보 1939년 1월 14일자 기사

〈그림 3-41〉 매일신보 1939년 1월 14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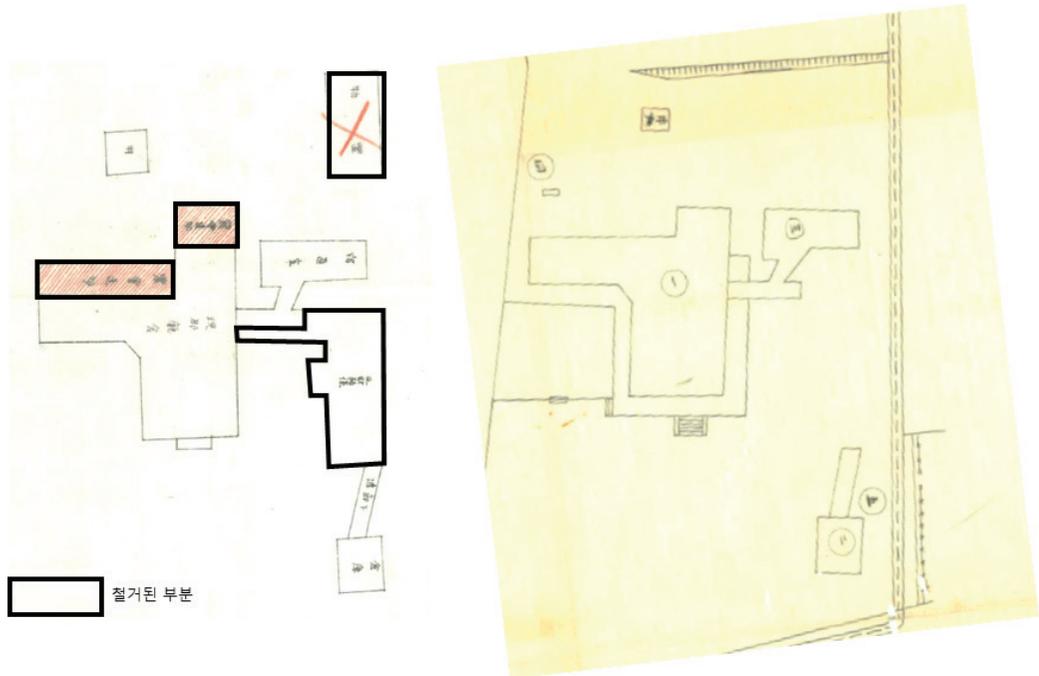
자료 : 『每日新報』

〈그림 3-42〉 동아일보 1940년 5월 4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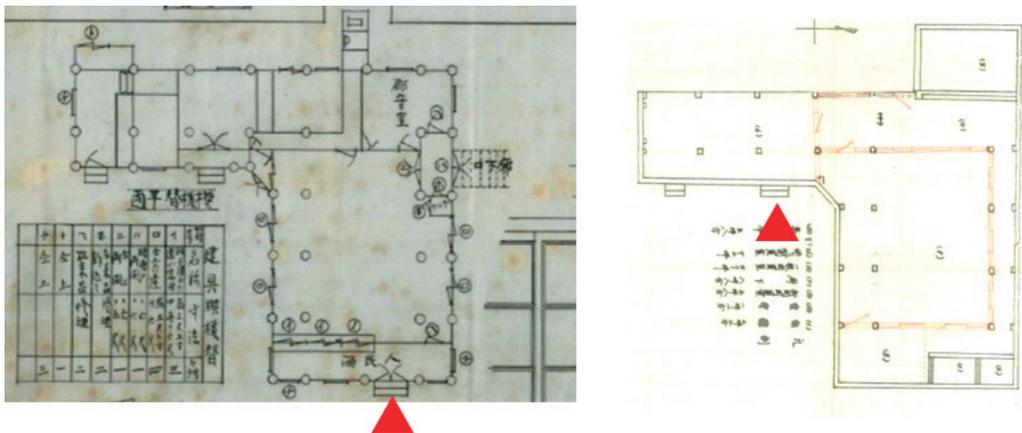
자료 : 『東亞日報』

〈그림 3-43〉 1938년 수원군청 배치도(좌)와 1939년 수원도서관 배치도(우)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44〉 1910년대 수원군청사의 평면도(좌)와 1939년 수원도서관 평면도(우)



자료 : 국가기록원

제3절 우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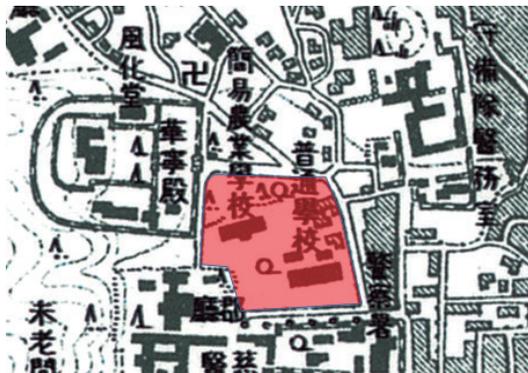
1896년에 설립된 수원군공립소학교(水原郡公立小學校)는 1906년에 우화관으로 이전하였다. 1906년 9월 18일 학부령 제28호로 각 지역의 공립소학교는 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고 이에 따라 수원공립소학교는 수원공립보통학교(水原公立普通學校)가 되었다.⁴⁰⁾ 1915년과 1918년 당시의 사진을 보면 개조한 우화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17년 수원지도에는 수원공립보통학교와 간이농업학교 두 개의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화관이 간이농업학교로 용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1921년에 운동장 확장을 위해 [수원면 신평리 395, 398, 399, 400-1, 400-2, 400-3]의 대지를 수용했다.⁴¹⁾

〈그림 3-45〉 수원지적도 (1911)



자료 : 최성환 (2017) 「한말 일제초 수원면 토지와 인물」 수원시정연 (재편집)

〈그림 3-46〉 수원지도 (1917)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40) 안국진(2018)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pp65

41) 1921년 5월 25일자 조선총독부관보 263호

〈그림 3-47〉 수원공립보통학교 (1915)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3-48〉 수원공립보통학교 (1918)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우화관 건물이 언제 허물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으나 1923년 사진에서는 우화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에는 우화관 주변으로 단층의 목구조 건물이 더 들어서 있다. 이후 1929년 사진에서는 우화관이 보이지 않는다. 1931년 항공사진에서도 우화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우화관은 1923년~1929년 사이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1931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수원공립보통학교의 건물들은 모두 단층의 목구조이다. 교사 건물 역시 단층 목구조로 된 일본식 건물이다. 이후 1933년에 신교사가 개축되었는데 연와조의 두개층 건물로 지어졌다.

〈그림 3-49〉 수원공립보통학교 (1923)



자료 : 사카야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1923) 「水原」

〈그림 3-50〉 수원공립보통학교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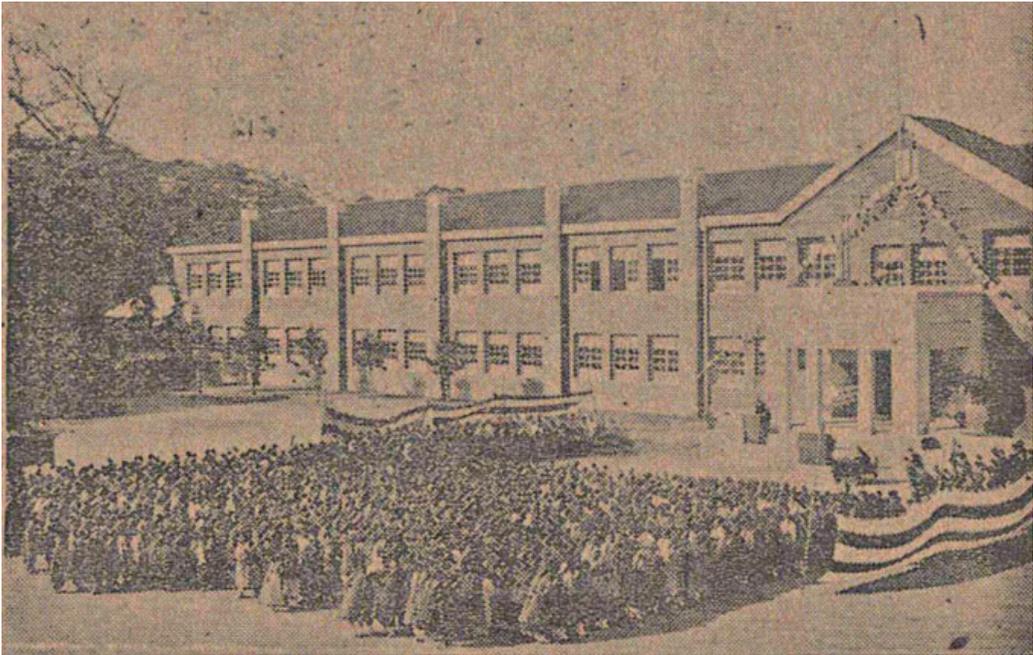
자료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그림 3-51〉 수원항공사진 수원공립보통학교 부분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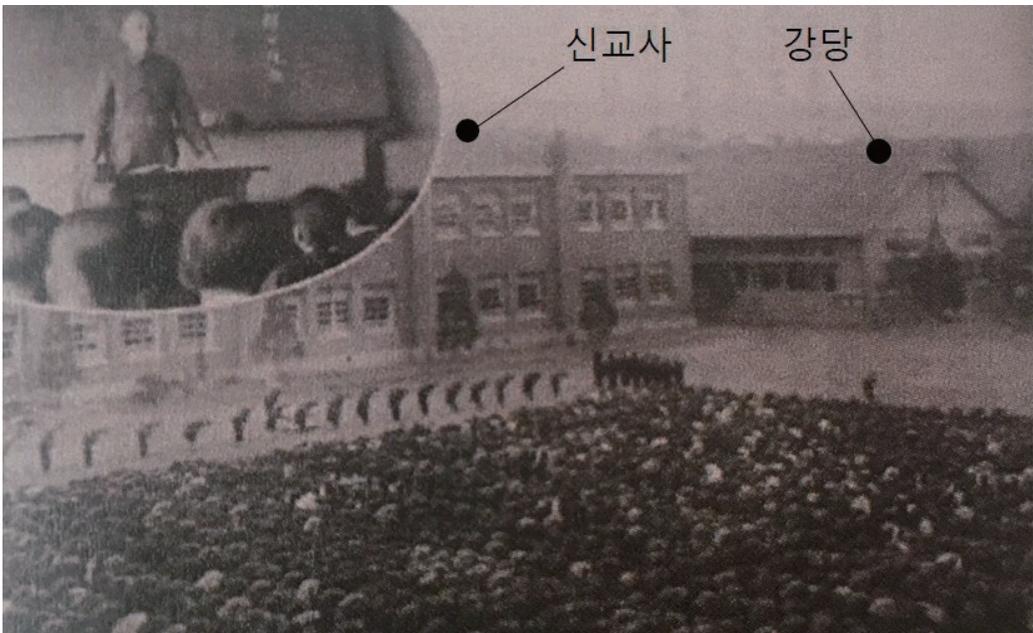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3-52〉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사신축 낙성식 (매일신보 1933년 12월 28일자 기사)



자료 : 『每日新報』

〈그림 3-53〉 수원공립보통학교 (1940)



자료 : 안국진 (2018) 「우화관 복원에 따른 근대건축자산 존치여부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제4절 남·북군영

〈그림 3-54〉 남·북군영 위치 (19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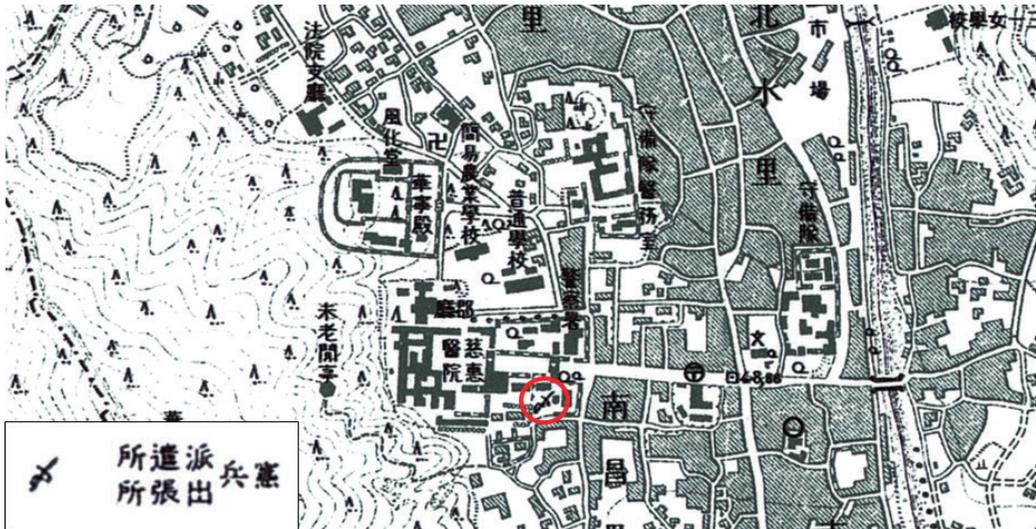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1. 남군영

일제강점기 초기 남군영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는 정확히 남아있는 문헌자료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1917년 수원지적도를 보면 남군영 위치에 헌병파견소·출장소(憲兵派遣所·出張所)를 의미하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당시의 헌병이란 ‘군사경찰권 및 보통경찰권을 집행할 자격을 가진 군인’이었고, 헌병대란 ‘헌병과 군인을 주체로 편성된 군대로, 경찰권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주한일본군 헌병대는 군사경찰권보다 보통경찰권의 행사가 중시되어, 군대조직이면서도 경찰기관으로서 통감의 지휘 하에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다.⁴²⁾ 1905년 3월 18일 주한 일본 헌병대 재편되어 경성헌병분대 산하에 모두 15개의 분견소가 배치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원분견소였다. 1905년 11월 24일에 수원에 헌병분대가 설치되었다.

42) 이승희 (2008)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 pp121

〈그림 3-55〉 남군영에 위치한 헌병파견소 (1917)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이후 헌병의 군사경찰기능을 완화하여 치안 중심으로 기능을 옮기면서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군사경찰 외에 통감의 지휘에 따라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07년 10월 7일자 칙령 제323호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으로 헌병의 치안경찰 기능이 법제화 되었고, 주차 헌병의 주된 임무가 치안경찰이 되고, 헌병 본래의 직분인 군사경찰은 부수적인 임무가 되었다.

1907년부터 항일운동이 전국적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한국인 헌병보조원을 모집하였다. 1908년 6월 11일 칙령 제31호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을 토대로 1908년 7월부터 헌병보조원 배치하였고, 경성, 평양, 천안, 대구, 영산포, 함흥 등 6개 헌병분대와 39관구(管區)로 개편, 그 아래 441개 분건소와 9개 파견소 설치. 이때 경성 분대 하에 제21관구를 두고 수원분건소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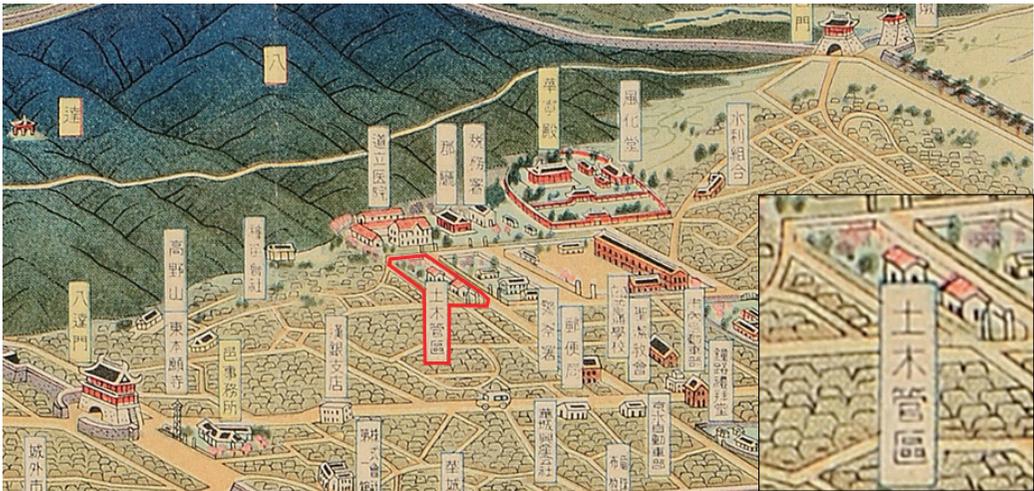
수원에 설치된 수원헌병분건소에서는 의병진압활동, 지역 내 치안경찰업무, 세금수송과 재무기관 지원의 출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1910년 지방에는 각 도에 경무부와 경찰서가 설치, 각 도 헌병의 장인 헌병좌관이 도경무부장을 겸직하였다.

1910년 8월 5일 주차헌병대 편성을 전국 13개 헌병대와 74개 헌병분대로 개편하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일원을 관구로 하는 수원헌병대가 수원에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로 수원헌병분대를 비롯하여 경성제1, 경성제2, 용산, 양주, 개성, 여주 분대 등 6개 헌병분대가 배치되었다.

수원헌병분대는 수원, 남양, 진위, 양지, 용인, 과천, 광주군을 관구로 하였고, 전국적으로 설치된 이들 74개 헌병분대에서 경찰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찰 조직이 통합하여 군사경찰인 헌병과 일반경찰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헌병 경찰체제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체제는 1910년 9월 10일 칙령 제343호 ‘조선주차헌병조례’를 통해 법제적으로 완결되었다.⁴³⁾

1917년 이후 1920년대에는 남군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1932년에는 수원토목관구(水原土木管區)가 낙남현에서 남군영 자리로 신축이전을 하였고,⁴⁴⁾ 1936년 수원의 그림지도에도 토목관구가 경찰서와 나란히 있다. 남군영 건물이 언제 헐렸는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토목관구가 신축이전하게 된 1932년 이전에 남군영 건물은 헐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6〉 남군영 자리에 위치한 토목관구 (1936)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43) 차선희(2014) 「수원의 지방통치기구 변화」 『수원시사 3권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pp405-408

44) 매일신보 1932년 9월 4일자 기사

2. 북군영

1904년 8월 한국 경찰의 통괄권을 일본인이 장악하게 되면서 지방경찰체제도 개선하고자 각 지역에 일본인 인력을 배치하였다. 수원경찰서에는 통역관 오카하라 시치로(岡原七郎), 순사 하시구치 나오야(橋口直矢), 사타로(牧佐太郎), 가와노 하치타로(川野八太郎), 우에노 게이키치(上野敬吉) 등 4명이 배치되었다. 통감부시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방에 경찰기구가 설치되고 치안행정이 강화되었고, 1907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항일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1907년 12월 한국 경찰 직책 명칭이 총순은 경부, 권입과 순검은 순사로 바뀌었고, 경무서와 분파소의 명칭도 경찰서와 순사주재소로 개칭되었다.

경기도에는 한성 5부 경찰서 외에 수원, 개성, 인천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수원경찰서의 관할지역은 수원군과 순사주재소를 설치한 과천, 시흥, 광주, 용인, 양지, 죽산, 안성, 양성, 진위 등 9개 군이었다. 1908년 7월에 수원경찰서 산하의 여주분서와 개성경찰서 산하에 있던 양주분서가 각각 경찰서로 승격되었으며, 수원경찰서 관할구역인 시흥군 내에 시흥순사주재소와 영등포순사주재소가 신설되었다. 1909년 1월에는 인천경찰서에 편제되어 있던 남양순사주재소와 안산순사주재소가 수원경찰서 관할로 변경되었다. 경찰기구의 신설과 재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1909년 10월에는 경기도 소재 경찰서가 수원, 안성, 인천, 강화, 개성, 연천, 양주, 여주 경찰서로 증설되었다. 수원경찰서 관할구역도 수원군 외에 8개 군으로 재편되어, 그 산하에 영등포, 과천, 시흥, 광주, 용인, 진위, 남양, 안산, 양지, 평택, 한중순사주재소가 편제되었다.

1910년 6월 24일 한국의 경찰 권한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통감부는 한국의 경시청 관제를 폐지하고 그 소속 사무를 경무총감부로 이관하여 경무총감을 맡은 한국주차헌병대장으로 하여금 전국의 경찰사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무총감부 산하도 경무부장을 각 도 헌병대장으로 총원하고, 헌병보조원을 순사보로 재편함으로써 헌병경찰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1916년 10월 1일 당시 수원경찰서에는 경부3명(조선인 2명), 순사 24명(조선인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수원경찰서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어서 다른 경찰서보다 10여명 정도 더 많은 순사가 배치된 것이 특징적이다.

1936년의 자료에서는 수원경찰서의 관할면적은 56.68리인데 비해 평택은 26.36리였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16년까지 1명의 통역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917년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언어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는 수원 역전파출소가 신설되었고, 1934년부터 수원정차장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34년에는 수원경찰서 관할 주재소가 병점, 오산, 의왕, 반월, 봉담, 매송, 비봉, 남양, 사강, 서신, 팔탄, 양감, 발안, 정남 조암 주재소 등 15개가 되었다.⁴⁵⁾

1910년 7월 본격적으로 일제가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 무수한 경찰서와 파출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찰서는 탁지부 건축소(度支部建築所)에서 건설하였는데, 건축소가 1909년 발행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概要 第1次)』에는 평양과 대구의 경찰서, 이등, 삼등, 사등 경찰서에 대한 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삼, 사등 경찰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을 여러 지역의 경찰서 건설에 활용한 표준설계도인 ‘공통도면(共通圖面)’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공통도면은 전국에 다량의 시설을 보급해야만 했던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1920년대까지도 일부 시설의 건립에 활용되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에서 확인되는 1910년의 전국 경찰서 수는 모두 99개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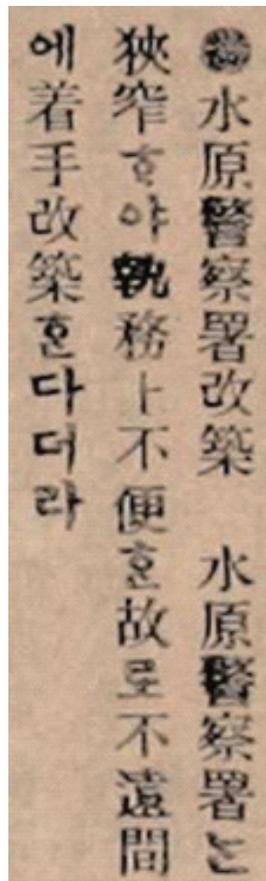
먼저 일등(一等)경찰서는 중심도시에 양식목조 단층건물로 계획되었다. 전면이 좁고 뒤쪽으로 긴 장방형의 평면으로 계획되었는데, 전면 길이는 36척(尺)(약 10.9m), 측면 길이는 부속가를 제외하고 60척(尺)(약 18.2m)으로, 면적은 약 198.3㎡이다. 전면 중앙에 계획된 현관을 들어서면, 좌우로 긴 대기실을 만나게 되며, 대기실 안쪽으로 속복도가 건물 후면으로 이어진다. 청사의 오른쪽에는 전면부터 사무실, 서장실, 휴게소가 배치되었고, 왼쪽에는 응접실, 숙직실, 형사실, 신문실(訊問室), 소사실, 탕비실이 배치되었다. 건물 후면에는 부속 건물로 화장실과 3실의 유치소가 연결되어 있다. 건물 입면은 매우 간소하게 계획되었는데 전체 벽체는 누름대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고, 특별한 장식은 부가되지 않았다. 다만, 지붕 상부에 높은 감시탑을 설치한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화재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등(二等)경찰서에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기재된 이등경찰서의 계획 내용과 동일하다.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일등경찰서와 전체적인 계획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전면이 좁고 측면이 길며,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동일하게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그 크기는 조금 다른데, 전면 39척(尺)(약 11.8m), 측면 54척(尺)(약 16.4m), 총면적 193.3㎡으로 일등경찰서보다 면적이 조금 작다. 외벽은 일등경찰서와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다. 각 실이 오른쪽 왼쪽에 재배치되어 있고, 조선인과 일본인(內地人)의 숙직실이 별도로 계획된 점과 조선인 숙직실에만 온돌이 계획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일선 경찰서에 조선인이 점차 고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일등경찰서와 다른 점은 별도의 부속건물로 되어 있던 유치소가 건물 후면에 바로 잇대어 붙였다는 점이다. 반면, 입면 계획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가장 간소한 누름대비늘판벽으로 설계되었다. 수원경찰서는 이등경찰서 공통도면으로 1909-1910년경에 지어졌다.

삼등(三等)경찰서의 경우에는 전면 39척(尺)(약 11.8m), 측면 51척(尺)(약 15.4m), 총면적 182.6㎡으로 그 크기가 조금 작을 뿐이다.

사등(四等)경찰서는 가장 많이 건립된 경찰서이다. 전체적인 계획 내용은 앞서의 일·이·삼등 경찰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크기만이 전면 33척(尺)(약 9.9m), 측면 45척(尺)(약 13.6m), 총 136.3㎡으로 조금 작을 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서는 가장 하급의 경찰서답게 대폭 간소화되었다. 먼저, 후면에 별도로 덧붙여졌던 유치소가 건물 내부에 계획되었으며, 두 개씩이던 숙직실도 하나만 계획되었고, 청사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내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후면을 관통하는 복도의 앞부분은 사무실에 통합하여 계획하였다.⁴⁶⁾

〈그림 3-57〉 황성신문 1909년 4월 25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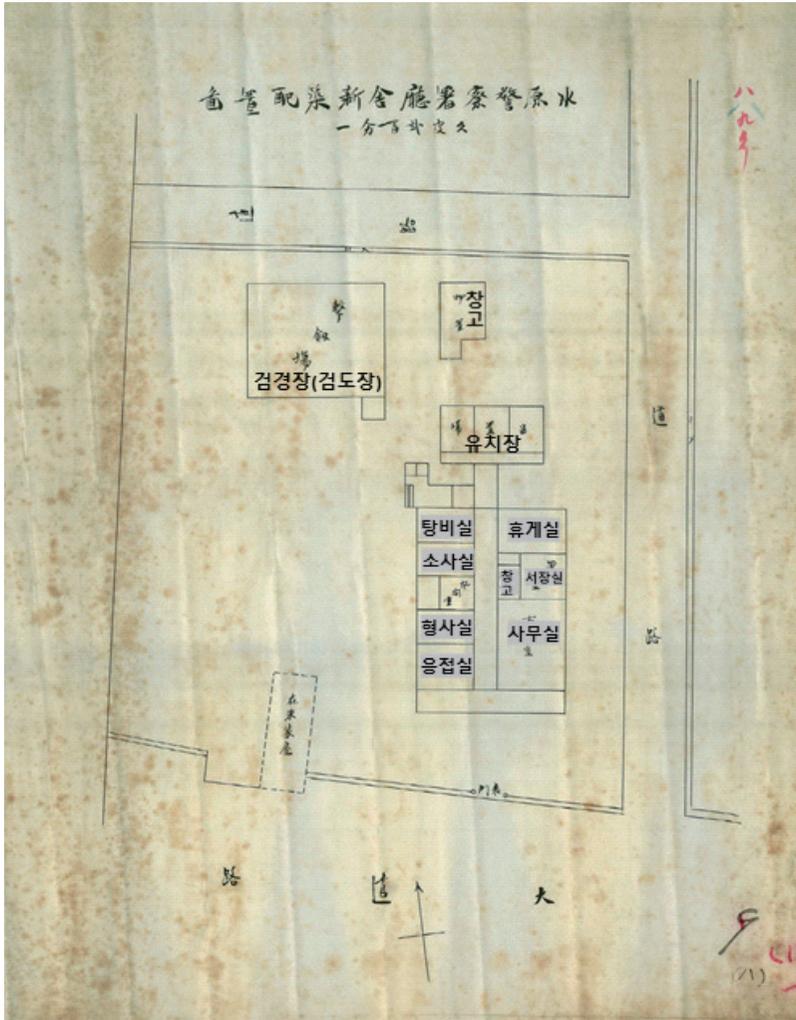


자료 : 『皇城新聞』

46)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securityOffice.do?flag=2>

수원경찰서는 북군영에 설치되어 기존의 북군영 건물을 이용하였으나 1909년 공간이 협소하여 경찰서를 개축하고자 계획하였고,⁴⁷⁾ 이에 따라 북군영 건물을 헐고 경찰서를 새롭게 지었다. 수원경찰서의 경우 현관입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등경찰서 공통도면대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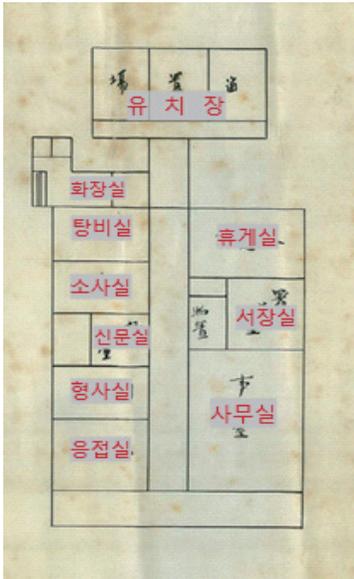
〈그림 3-58〉 수원경찰서청사 신축도면 (1910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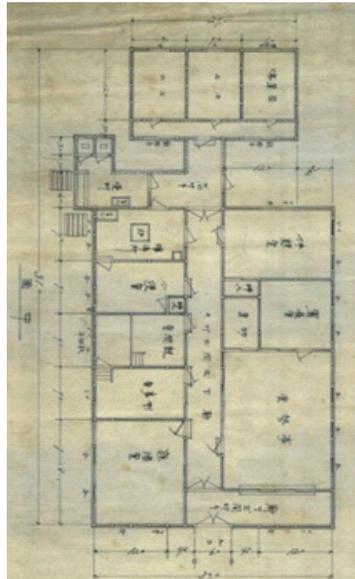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47) 황성신문 1909년 4월 25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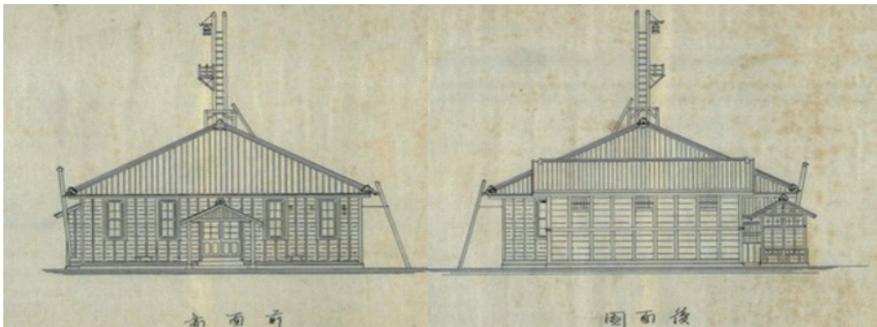
〈그림 5-59〉 수원경찰서청사
(19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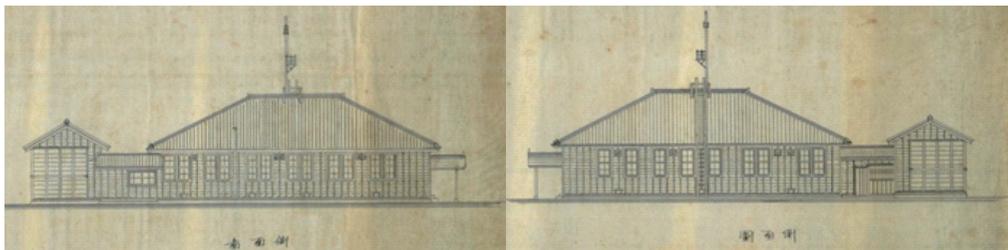
〈그림 5-60〉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1910-12 추정)



〈그림 3-61〉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전면도(좌)와 후면도(우) (1910-12 추정)



〈그림 3-62〉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측면도 (1910-12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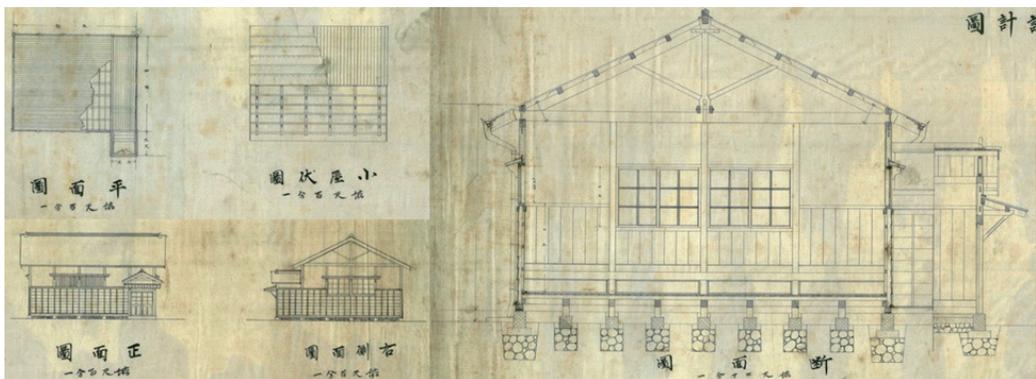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63〉 수원경찰서 (1929)



자료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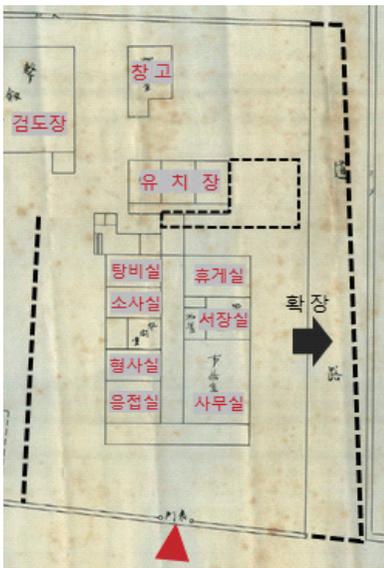
〈그림 3-64〉 이등경찰서 검도장 공통도면 (1910-12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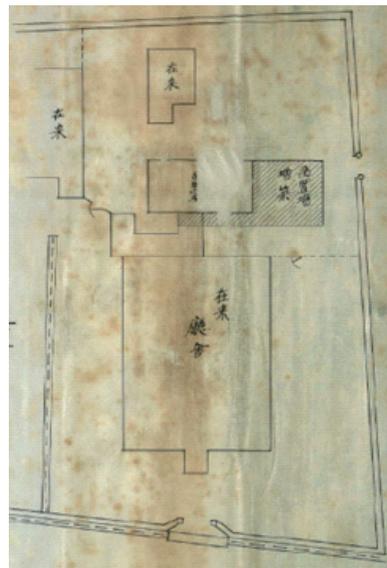
자료 : 국가기록원

신축공사 이후에도 건물의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1910년대 수원경찰서는 유치장 증축 공사를 하였다. 원래 3개실이었던 유치장을 5개실의 유치장으로 확장하는 증축계획이었다. 증축계획공사 배치도를 보면 경찰서 부지도 확장되었다. 또한 부지 내에도 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시켰다. 1911년 수원지적도와 1917년 수원지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1911년 지적도에는 행궁주변에 흐르는 하천이 경찰서 부지 옆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1917년에는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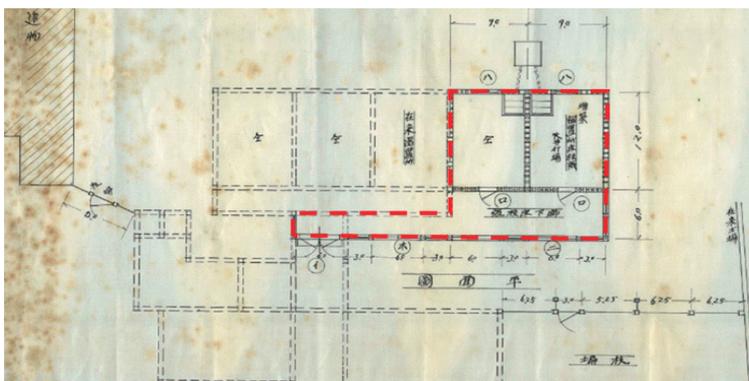
〈그림 3-65〉 초기 수원경찰서 (1910년대)



〈그림 3-66〉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공사설계도 (19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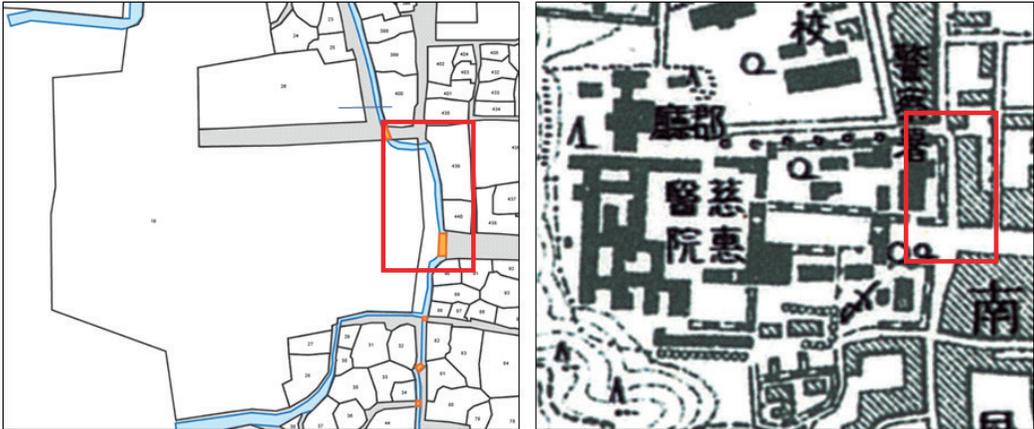


〈그림 3-67〉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공사설계도 상세 (1910년대)



자료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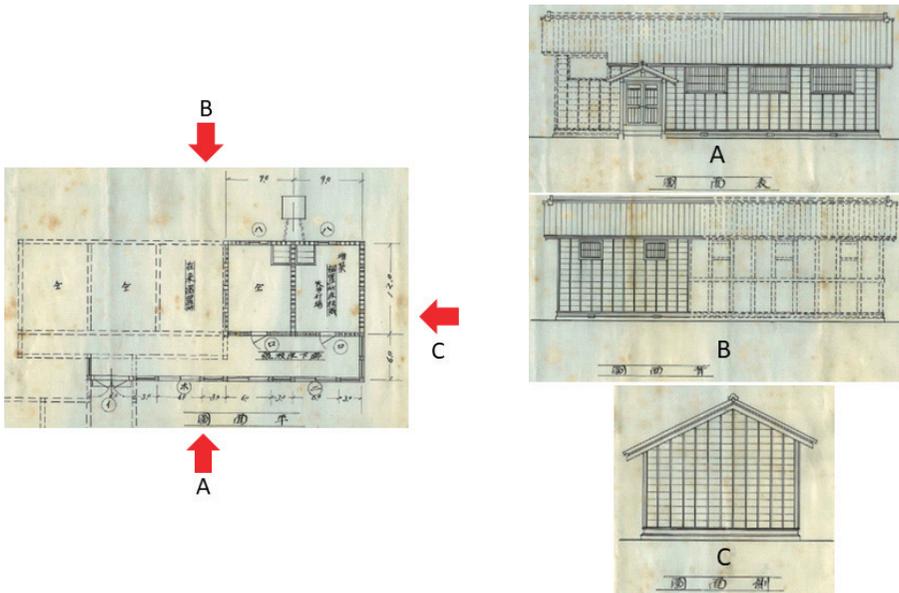
〈그림 3-68〉 1911년 수원지적도(좌), 1917년 수원지도(우)



자료 : 1917년 수원지도 - 수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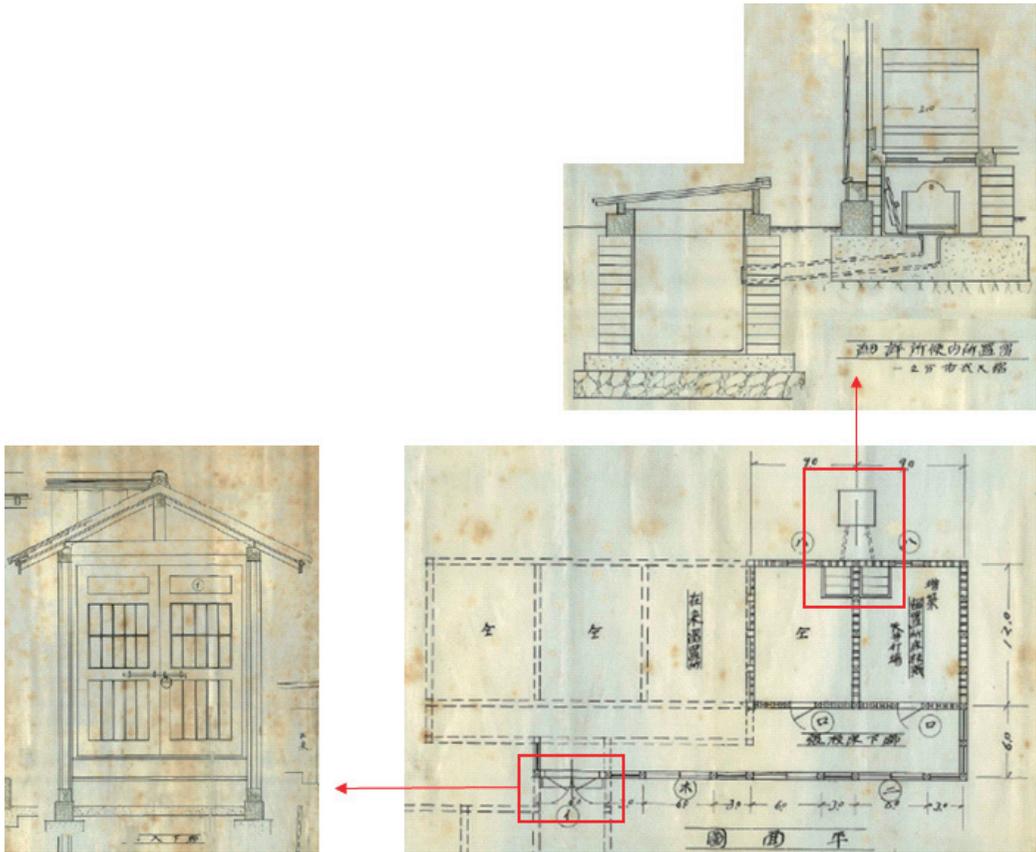
유치장 증축 공사설계도면을 보면 기존의 유치장 각 실의 크기와 동일한 실 두 개를 더 짓고 복도를 더 넓혔다. 그리고 원래는 유치장과 경찰서 청사 사이를 복도로 연결을 시키고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았다. 유치장 증축을 하면서 유치장과 청사사이에 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증축된 부분도 기존 건물과 마찬가지로 비늘붙임벽의 단층 목구조로 하였다.

〈그림 3-69〉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기타 공사설계도_입면도 (1910년대)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70〉 수원경찰서 유치장 증축 기타 공사설계도 (1910년대)
 - 복도입구에 설치된 문 입면도(좌)와 유치장 실내 변소 단면도(우) -



자료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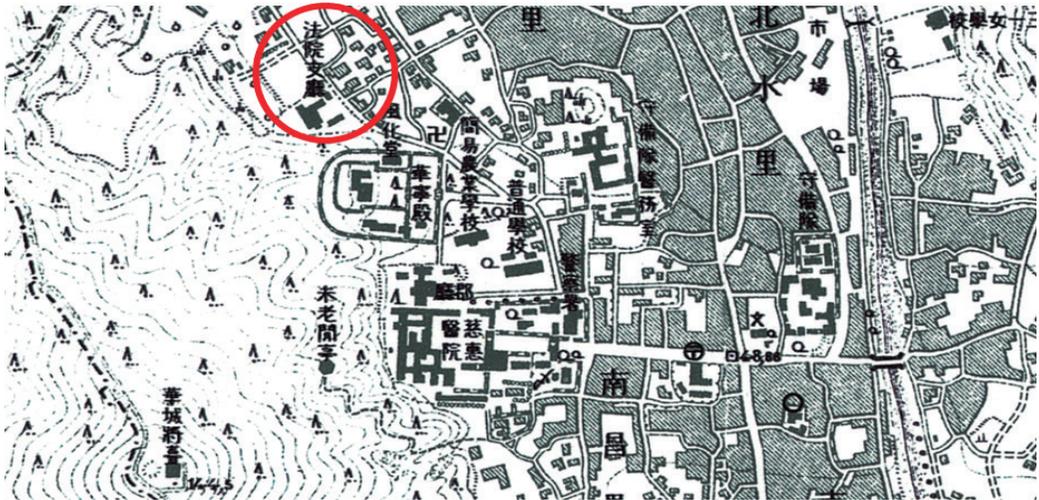
확장된 복도의 폭은 6척(尺)으로 약 1.82m 이며, 유치장은 각 실의 크기가 모두 같고 실의 크기는 가로 9척(2.73m)X12척(3.64m)이다.

제5절 강무당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수원지방법원은 이아(貳衙)에 위치한 것만 알려져 있으나 최초의 위치는 강무당이였다. 원래 군사들의 무예 연마장소였던 강무당에 1908년 10월 30일 수원구 재판소(水原區裁判所)가 개청했다. 관할구역 재판업무 외에 미개청 구재판소인 안성, 이천, 여주 구재판소의 재판사무도 함께 담당했다. 1909년 7월 24일 통감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사법 및 재판 관련법 일체를 폐지하고, 1909년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한국 민·형사 재판 장악했다.

통감부재판소는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및 고등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에서 구재판소는 주로 한국인의 일부 법에 위반되는 죄에 대해서 재판을 집행하는 곳이다. 통감부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도 변경되어 경성지방법판소 산하 수원구재판소에서는 수원군과 시흥, 과천, 광주, 용인, 진위, 남양, 안산군의 관할 재판사무를 담당했다.⁴⁸⁾

〈그림 3-71〉 1917년 당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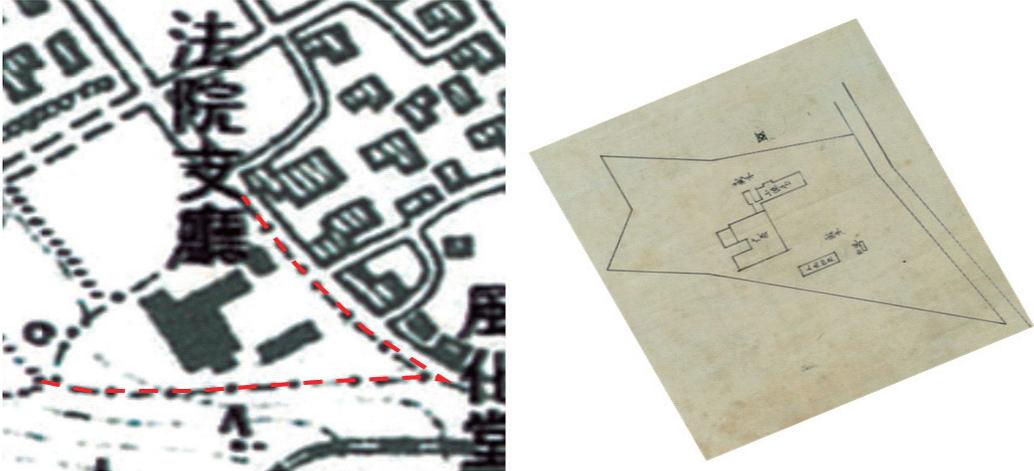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1917년 수원지도에서 자혜의원 주변을 확대해서 보면, 수원지방법원은 화녕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이아 자리로 신축하기 이전이다. 1909~191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구재판소증축급모양체공사설계도’에서 건물 배치도를 보면 대지의 형태가 흡사하다.

48) 이상해 (2014)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시사 17권 -수원 화성-』 pp5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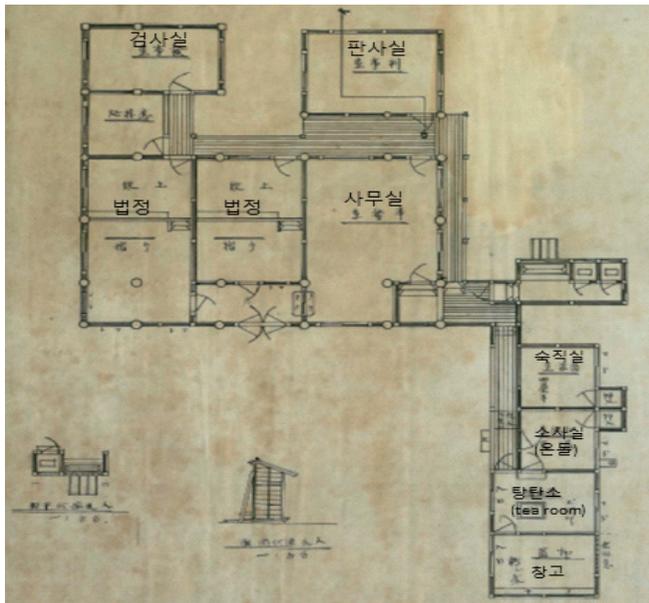
건물의 평면도를 보면 강무당 건물을 개조해서 쓴 흔적이 보인다. 건물의 실구성을 살펴 보면 법정, 검사실, 판사실, 사무실이 있는 본관 옆으로 숙직실과 탕탕소(湯呑所, 방 가운데 바닥을 파낸 화로가 있는 일본 전통방식의 다실茶室) 등으로 구성된 보조건물이 연결되어 있다. 숙직실은 온돌로 된 방과 다다미로 된 방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72〉 1917년의 수원지방법원(좌)과 1910년대 초의 수원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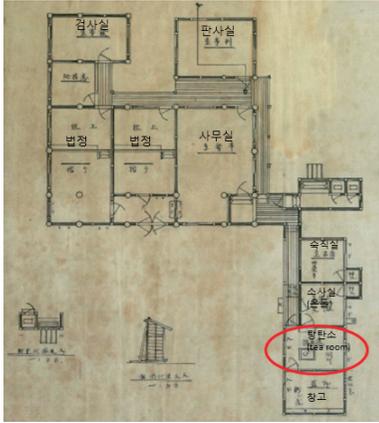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좌) / 국가기록원(우)

〈그림 3-73〉 수원구재판소증축급모양체공사설계도(1909-11 추정)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74〉 수원구재판소 증축
급모양체 공사설계도 (1909-11 추정)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75〉 탕탄소(湯呑所) 모습



자료 : 구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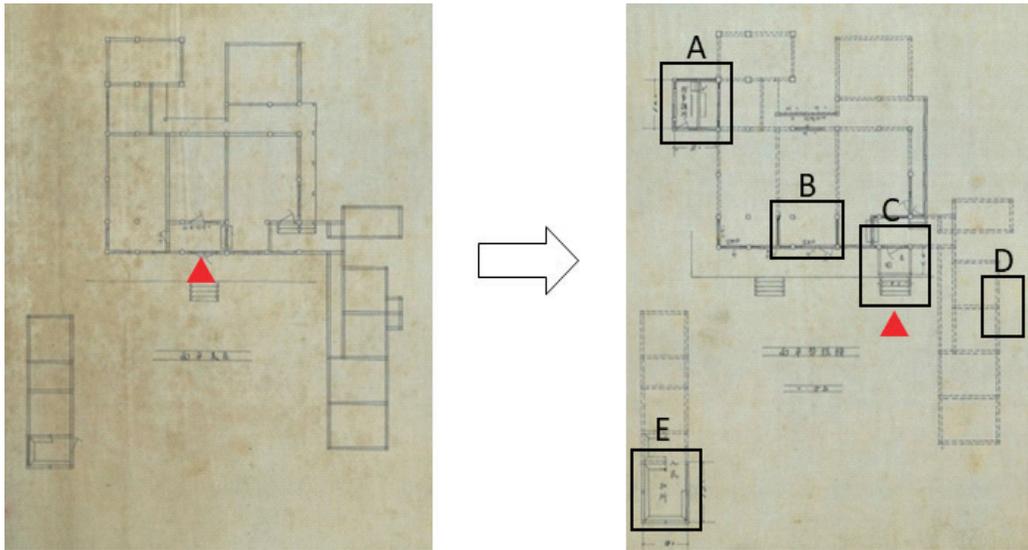
〈그림 3-76〉 1910년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자료 : 국가기록원

1910년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알려진 사진은 이아의 이전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강무당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중앙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축공사하기 이전에 찍은 사진이다.

〈그림 3-77〉 수원구재판소 증축공사로 인한 변화 (1910-20 추정)



A : 법정이 추가 됨

B : 원래 현관이었던 공간이 실내공간으로 바뀌면서 입구가 C로 바뀜

D : 공간의 일부가 없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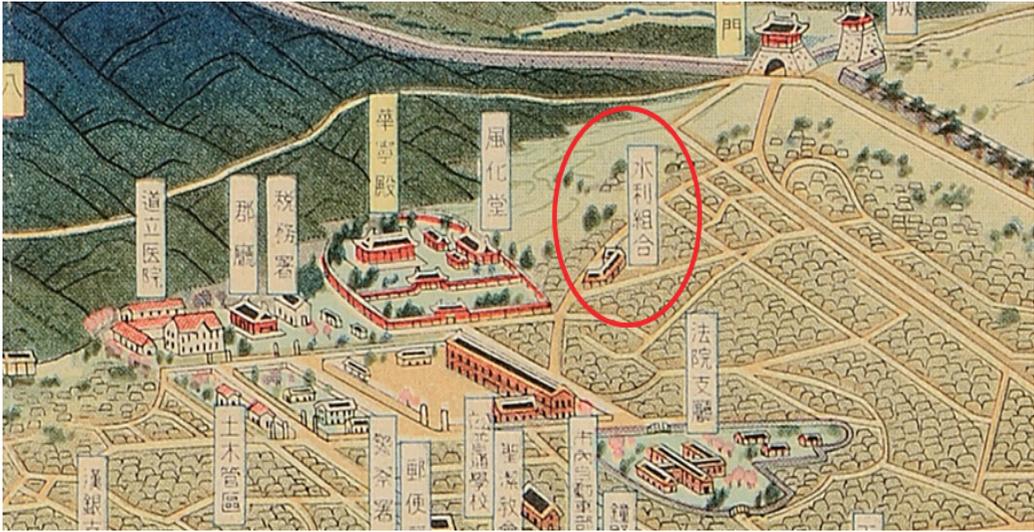
E : 人民扣所(인민구소, 재판을 앞두고 대기하는 장소)를 확장

자료 : 국가기록원

수원구재판소 증축공사설계도를 보면 부분적인 변화들이 보인다. 먼저 가운데 출입문이 있는 현관부분은 입구를 막아 독립된 실(室)로 만들고, 입구는 옆으로 옮겨졌다. 작은 규모지만 법정 하나가 증축 되었고, 숙직실에 있던 일부 시설이 철거되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일자로 된 건물은 일반인 대기실(인민구소(人民扣所), 재판을 앞두고 대기하는 장소) 공간이 있었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일반인 대기실도 함께 확장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이 '이아' 터로 신축이전 한 후의 비어진 강무당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으며 건물의 존속여부에 대한 정확한 문헌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1936년 수원의 그림지도와 1943년 수원읍지도를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다. 1936년 조감도를 보면 수리조합(水利組合)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3-78〉 「관광의 고도, 수원」 (1936)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1943년 지도에는 구체적인 수리조합 명칭이 있다. 일월수리조합(日月水利組合), 여화수리조합(麗華水利組合), 장지수리조합(長芝水利組合), 수룡수리조합(水龍水利組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수리조합(水利組合)은 1906년에 제정된 수리조합 조례에 따라 관개배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조합이다.⁴⁹⁾

여화수리조합은 1919년 5월 22일에 설립한 회사이며 사장은 박건유(朴健裕)이다. 박건유는 대동산업주식회사(大同産業株), 1928년 설립)에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산업자금을 대부 하거나 농산물, 종자, 비료, 농기구의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후 그는 제일관주식회사(齊一館株), 1935년 설립)도 설립하여 대표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수룡수리조합은 1927년 8월 27일에 설립된 회사로 홍사훈(洪思勛)이 대표이다. 홍사훈의 집안은 수원에서 전통있는 상업가이자 대지주였다. 홍사훈의 부친 홍민섭은 보부상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홍사훈은 수원·용인·진위에 걸쳐 각각 549정보를 소유한 대지주였으며, 상업과 지주경영을 통해 경성에서도 자산가의 반열에 오를 만큼 대표적인 수원의 부자였다.⁵⁰⁾ 그가 운영한 회사는 수룡수리조합뿐만 아니라 수원극장(水原劇場株), 1933년 설립), 만종원(萬種園株), 1932년 설립) 등이 있다.

49)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B%A6%AC%EC%A1%B0%ED%95%A9>

50) 이승렬(2013) 한말·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술 제84호, pp177-185

〈그림 3-79〉 강무당 자리에 위치한 수리조합 (1943)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제6절 이아

수원시는 조선시대 화성유수부의 제2청사이자 화성유수를 보좌한 수원판관이 주재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 옛 이아(貳衙)터 발굴을 2015년에 하였다. 이아 부지의 사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쓰였다고만 알려져 있으나, 법원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1920년부터이다. 원래 수원지방법원은 1908년 강무당에 최초로 들어섰고, 1920년에 신축이전을 하였다. 1920년 이전 이아의 사용에 관해서는 1917년 수원지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도상에는 수비대의무실(守備隊醫務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즉 이아 건물은 수비대의무실로 사용되다 1920년부터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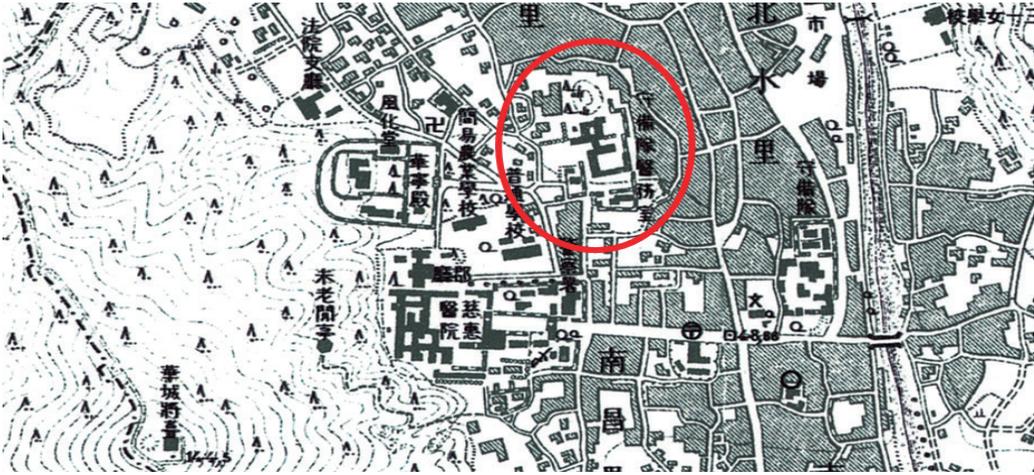
1. 수비대 의무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수비대는 치안유지의 중심기관이었다. 그러다 통감부시기에 의병투쟁을 계기로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대를 확장하게 되었다.⁵¹⁾

수원의 수비대는 중영을 본부로 사용하였고, 이아건물은 수비대의무실(守備隊醫務室)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사용이나 건물 활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의무실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응급 환자나 가벼운 부상자들을 진찰·치료하기 위하여 각 부대에 설치한 시설’로 이아 건물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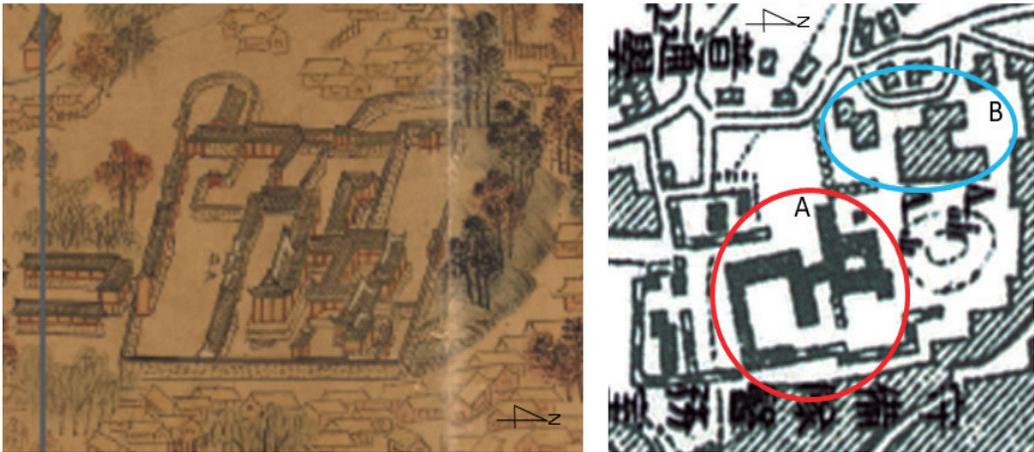
51) 이승희(2008)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역할」 한일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 pp120

〈그림 3-80〉 수비대의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이아 (1917)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3-81〉 19세기 화성도병(華城圖屏)의 이아(좌)와 1917년 수원지도의 이아(우)



A : 중심부분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음

B : 새롭게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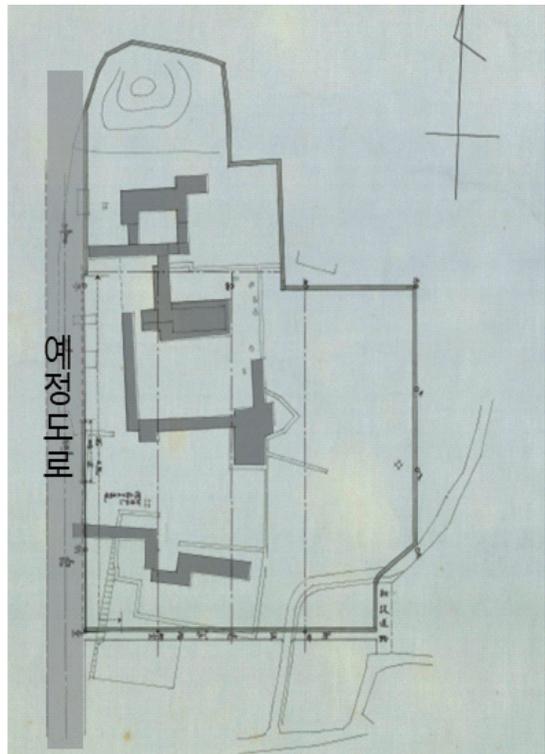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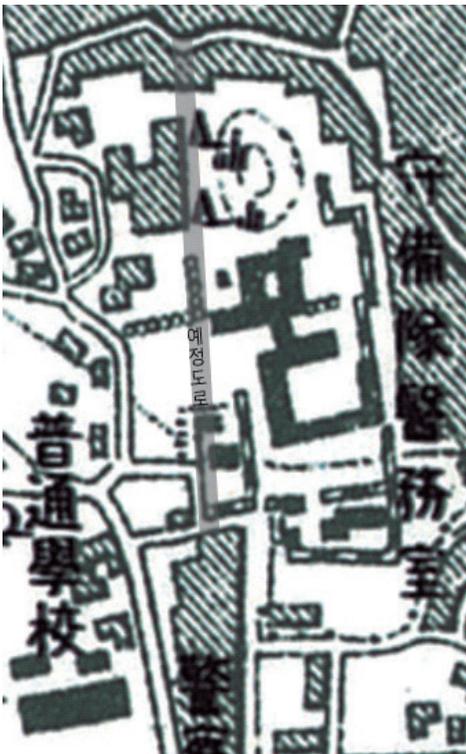
자료 : 2018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우)

19세기에 그려진 화성도병(華城圖屏)에 그려진 이아건물과 1917년 수원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아건물 배치도를 비교해보면, 이아 건물의 일부가 훼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심건물은 대부분 남아서 사용되고 있고, 부지 한 켠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도 있다.

2.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919년 8월부터 1920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 이아 터에 신축되었다.⁵²⁾ 이 때 이아 건물은 완전히 헐리게 되었고, 주변에 벽을 둘러 새로운 부지 경계를 만들고 새로운 도로도 놓여졌다. 이아 주변의 부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기존 도로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3-82〉 1917년 이아(좌)와 1918년 수원지방법원 신축부지 공사평면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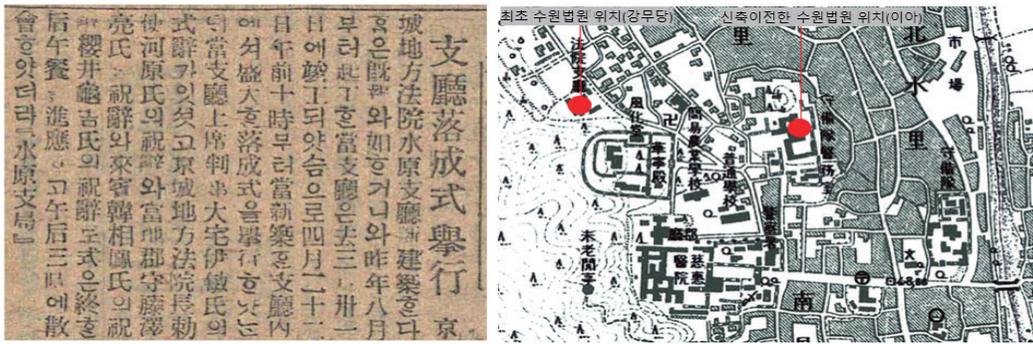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좌) / 국가기록원(우)

52) 매일신보 1920년 4월 25일자 기사

수원지방법원의 위치변화를 보면 강무당은 화녕전 뒤에 위치하고 있어 중심도로와 거리가 있으나, 이아 위치로 이전한 신축건물은 화성성내에서도 중심지역에 위치한다. 신축한 건물의 정면은 새롭게 지은 도로로 향해있다. 자혜병원이나 낙남헌은 모두 정문방향이 동쪽이지만 법원은 정문 방향이 서쪽이다. 평면도에서의 실구성은 현관에 들어서면 법정, 판사실, 서기와 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복도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판사실과 복도 맞은편으로 검사실과 검사장실이 있다. 건물 후면에는 직원용 숙직실 두 개실이 있는데 하나는 다다미 나머지 하나는 온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강무당 시기에도 있었던 탕탕소가 신축건물에도 있다. 전반적으로 각 실의 크기가 커지고, 전면에는 법원 업무를 위한 공간과 후면에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등분해 있다. 건물의 입면도는 1923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유사하다.

〈그림 3-83〉 매일신보 1920년 4월 25일자 기사(좌)와 수원지방법원 위치변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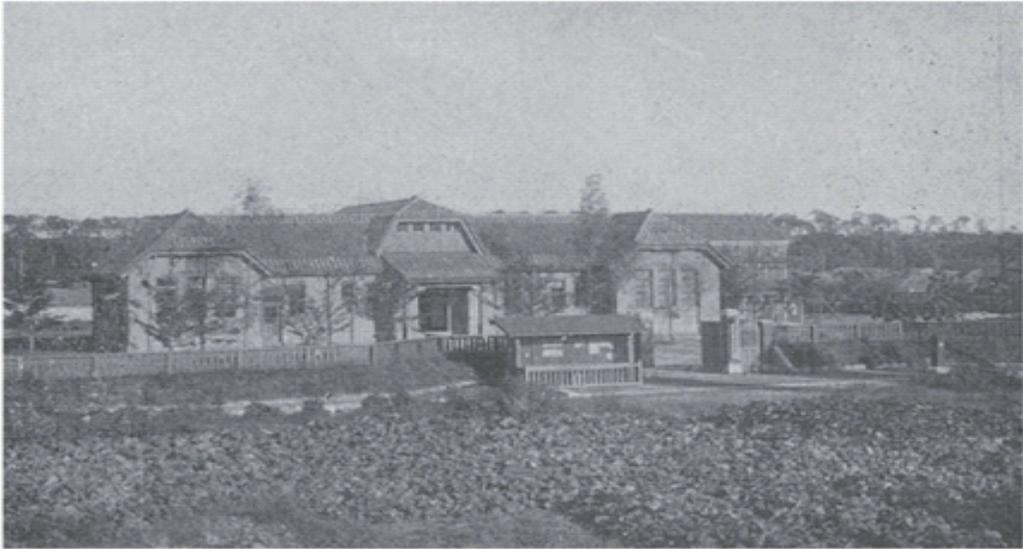
자료 : 『毎日申報』(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우)

〈그림 3-84〉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입면도 (1918)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85〉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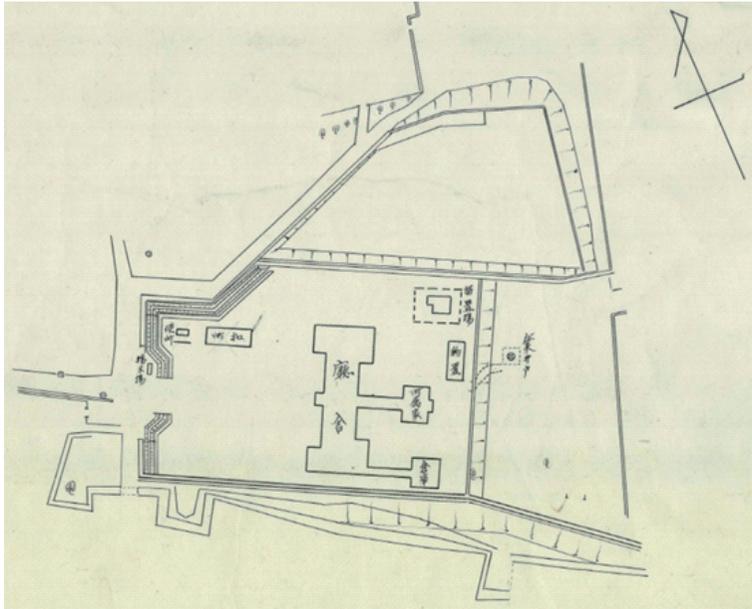


자료 : 사카야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1923) 「水原」

1920년대 지방법원의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건물이다. 전면에 업무공간과 후면에 휴식공간을 두는 구조로 1926년에 신축된 평양지방법원 안주지청을 보면 정문과 건물의 배치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신축공사 이후 법원의 변화는 1932년 지도와 1943년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1932년은 법원청사 측면에 증축된 건물이 법원청사와 연결되어 있고, 1943년 지도에서는 기존에 연결된 건물이 확장되었고, 다른 측면에도 증축 및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아는 일제강점기 동안 수비대 의무실로 사용되면서 점차 훼손되었다가 1920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신축공사를 계기로 철거되었다. 이아의 부지 경계도 기존과 다르게 설정되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이아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졌다. 신축된 수원지방법원 건물은 1920년부터 원형은 유지한 채 지속적인 증축·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림 3-86〉 평양지방법원 안주지청 신축공사 배치도 (1926)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87〉 수원시도로공사계획도 (1932)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 3-88〉 수원읍지도 (1943)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제7절 중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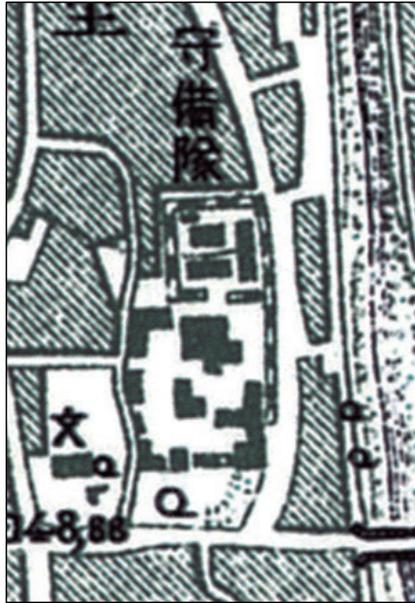
중영은 화성유수부 군무(軍務)를 담당하던 중군(中軍)이 관할하던 관청이었으며, 1907년부터 일본군대의 수비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17년 지도에도 수비대로 표시되어 있어 1910년 대까지는 수비대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929년의 사진에서는 일본의 종파불교 진언종(眞言宗)의 다카노야마(高野山) 법릉사(法隆寺)에서 운영하는 3년제 다카노야마(高野山) 국민학당이 들어서 있다. 수비대에서 다카노야마 국민학당으로 1917~1929년 사이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국민학당 자리를 비우고 수원군청 부지로 선정되면서 퇴거명령을 내렸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퇴거명령을 내린 주체는 군대인 것으로 보아 수비대가 철수 한 이후에도 군대소유의 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에 있는 고야산 법용사高野山法隆寺에서는 동사에서 경영하고 있는 고야산 국민학당高野山國民學堂 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빈민 十三戶 五十여명에게 지난 三月중에 철거명령을 내리자 갈 곳이 없는 동거주민들은 백방으로 교섭하였으나 군사령부軍司司令部에서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으니 불일내로 철거하라하므로 별안간 철회같은 명령을 받은 五十여명의 빈민들은 대항도 못하고 울며불며 갈 곳을 찾으나 갈 곳이 막연하므로 등을 미러낼 때까지는 할 수 없다고 법용사와 학당에 대한 비난이 자못 비등하다고 한다.’ 53)

1917년 지도에 보이는 수비대의 건물배치도와 1932년 다카노야마(高野山) 국민학당의 건물배치도가 대부분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건물의 신축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없으나 건물 일부만 남고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38년 수원군청이 이전하면서 중영은 모두 헐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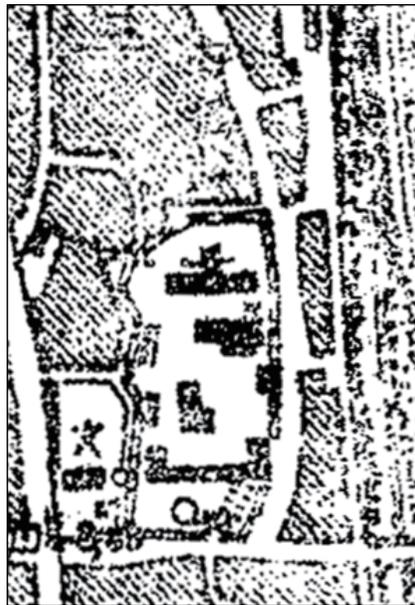
53) 동아일보 1935년 5월 3일자 기사

〈그림 3-89〉 수원수비대 (1917)



자료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3-90〉 다카노야마(高野山) 국민학당 (1932)



자료 : 국가기록원

수원군청 신축공사는 1938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총 공사비 3만 9천원을 들여 공사는 7개월 만에 완공되었고, 1938년 8월 1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⁵⁴⁾ 1910년대에 찍은 수비대 사진에서는 중영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29년에 찍은 다카노야마 국민학당의 사진에서는 정문이 완전히 달라져있다. 1929년 이전부터 중영의 부분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1938년 군청사가 들어설 때는 중영이 완전히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새로 지은 수원군청 건물은 토목관구 신청사 및 수원의 주요 건물을 지은 청부업자 요리오카미이찌(頼岡實一)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수원군청 신축공사 배치도를 보면 전면에 수원군청사가 있고 그 뒤로 직원숙직실과 회의실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청사 입구에는 자동차 진입로를 두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수원세무서의 입구의 자동차 진입로와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그림 3-91〉 수원수비대 (1910년대)



자료 : 독립기념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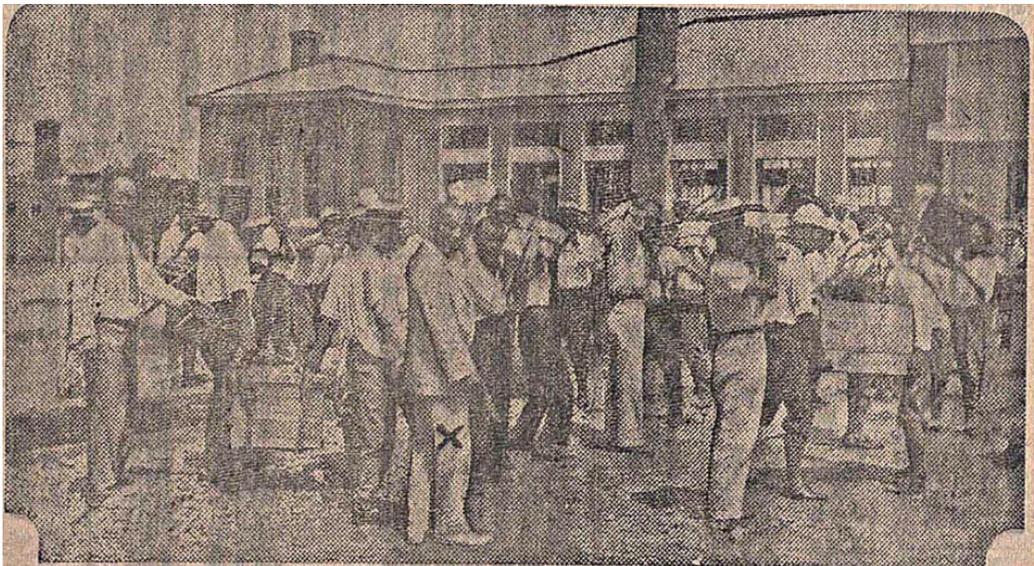
54) 매일신보 1938년 8월 4일자 기사

〈그림 3-92〉 다카노야마(高野山) 국민학당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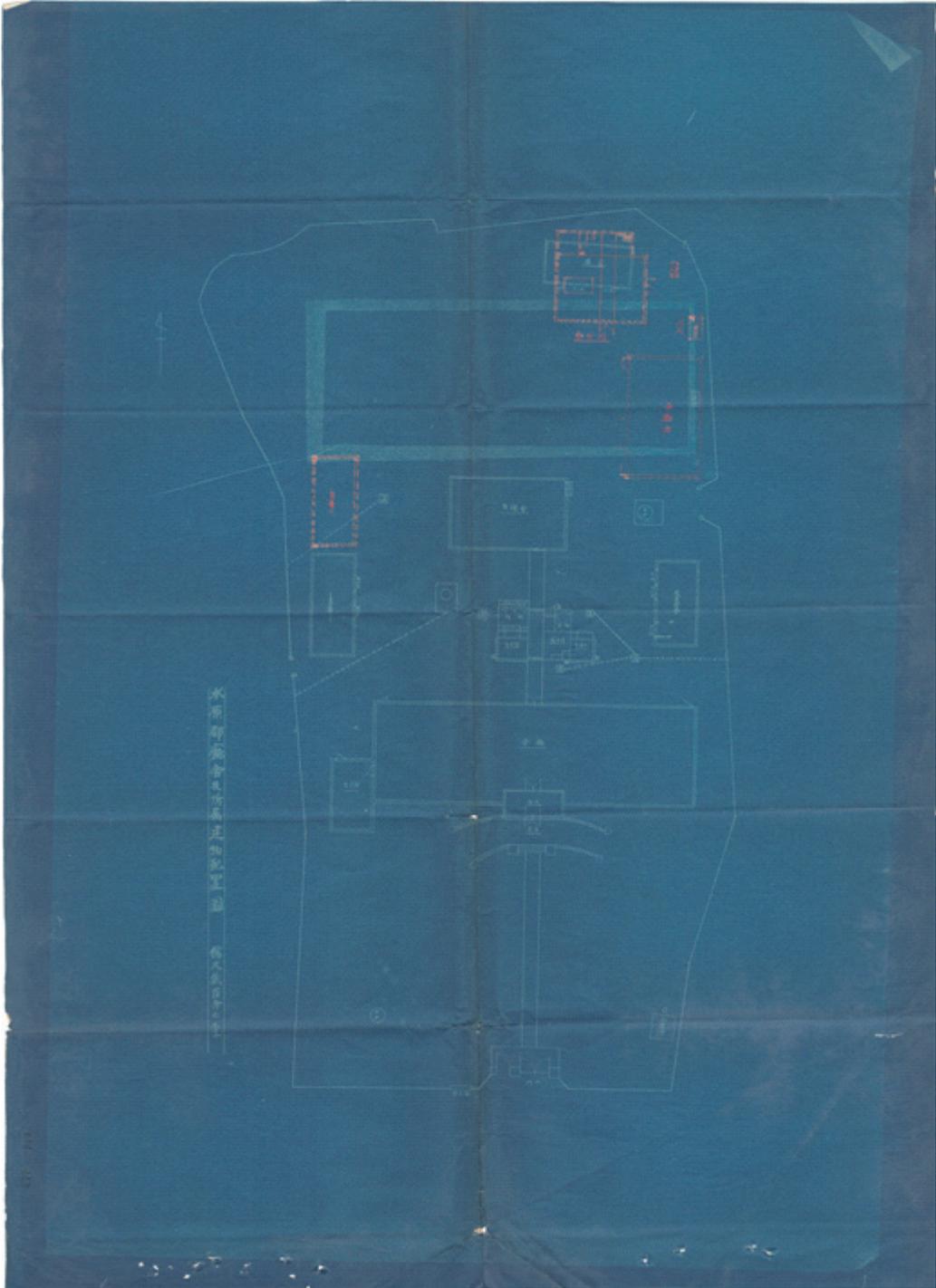
자료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그림 3-93〉 수원군청 신청사 (매일신보 1938년 8월 4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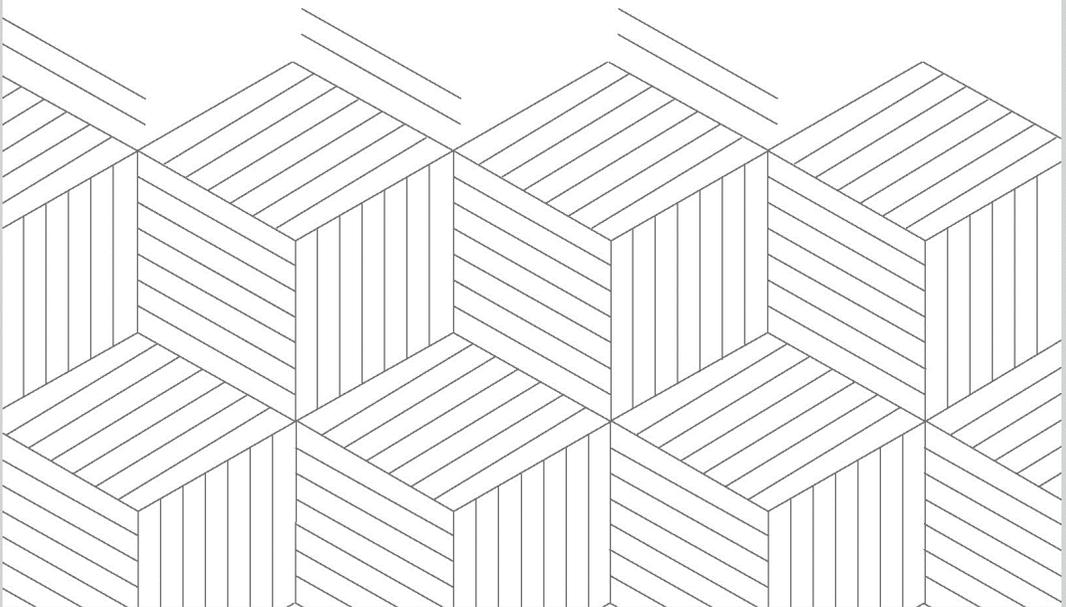
자료 : 『毎日申報』

〈그림 3-94〉 수원군청사 신축공사 배치도 (1938)



자료 : 국가기록원

제4장 맺음말



제4장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수원관립건축을 행궁중심 영역, 낙남헌, 우화관, 남군영, 북군영, 강무당, 이아, 증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의 관립건축으로 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이 어떻게 바뀌고 훼손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 행궁중심 영역

- 경기도관찰부가 1910년에 서울로 이전하면서 화녕전에 있던 수원자혜의원이 1911년 행궁중심영역으로 이전하였다.
- 행궁건물이 필요에 따라 수선 및 증개축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 1923년 신본관 건축 시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궁건물이 헐려나갔다.
- 신본관 건축 이후의 자혜의원의 변화과정은 자료가 거의 없어 연구가 필요하다.

■ 낙남헌

- 1895년에 수원군청이 낙남헌에 설치되었다.
- 1910년경 우화관 앞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설치되면서 행궁의 일부 벽이 헐려나갔다.
- 1916년에는 토목관구가 설치되었고, 수원군청과 함께 낙남헌을 사용하였다.
- 1932년 토목관구는 남군영으로 신축이전하였다.
- 1934년 수원세무서가 설치되었고, 수원군청과 함께 낙남헌을 사용하였다.
- 1938년 수원군청과 수원세무서가 신축이전하면서 낙남헌은 비게 되었다.
- 1939년 비어있는 낙남헌을 수원도서관으로 변경 계획을 하였다.
- 1940년 수원도서관이 개관하였다.

■ 우화관

- 1906년 수원공립보통학교가 이전하여 우화관을 교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1923년 사진까지 우화관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1929년 사진에서는 우화관이 보이지 않았다.

- 1923년~1929년 사이에 우화관이 헐린 것으로 추정된다.
- 교사건물로 단층의 일본식 목구조 건물이 대체하였다.
- 1933년 두 개 층의 연와조(벽돌조)건물로 신교사가 지어졌다.

■ 남군영

- 일제강점기 접어들면서 헌병 파견소 및 출장소가 남군영에 설치되었다.
- 1932년 토목관구가 신축이전하게 되는데 남군영이 헐린 시기는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 북군영

- 1907년 수원경찰서가 설치되었고, 1909년에 개축계획을 세웠다.
- 1910년경에 수원경찰서는 이등경찰서 공통도면에 따라 수원경찰청사가 지어졌다.
- 수원경찰서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북군영은 헐려나갔다.
- 이후 유치장 증축공사 때 경찰서 부지가 일부 확장이 이루어졌다.
- 일제강점기 동안 경찰서 자리를 계속 유지하였다.

■ 강무당

- 1909년 '수원구재판소'로 수원지방법원이 강무당에 개칭하였다.
- 1910년대 건물 증축이 일부 이루어졌다.
- 1920년에 '이아'로 수원지방법원은 신축이전하였다.
- 이후 수리조합이 사용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이전하고 나서 강무당은 헐려나갔다.
- 강무당이 헐린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1936년 이전으로 보인다.

■ 이아

- 일제강점기 초기 이아건물을 수비대의무실로 사용하였다.
- 1920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아 건물은 헐려나갔다.
- 주변 도로체계도 정리가 되면서 기존의 이아의 흔적은 사라졌다.

■ 중영

- 장용영외영의 사령부였던 중영은 1907년 일본군에 접수되면서 수비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이후 일본 종파불교 진언종眞言宗의 다카노야마高野山 법륜사法隆寺에서 운영하는 3년제 다카노야마(高野山)국민학당이 들어섰고, 1935년까지 사용되었다.

- 다카노야마 국민학당 시기에도 일부 증영건물이 헐려나갔고 그 이전부터 서서히 증영 건물이 헐려나갔다.
- 1938년 수원군청 신축공사 때 증영은 모두 헐려나갔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부분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자혜의원은 1923년 신본관 건축 당시 봉수당이 헐린것으로 알려졌으나 봉수당은 헐리지 않고 일반병실동으로 개조되어 계속 사용되었다.
- 낙남헌은 수원군청의 이전 이 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된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낙남헌 내부를 도서관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다.
-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경우 최초 설립 위치는 ‘이야’가 아니라 ‘강무당’이었다.
- 수원지방법원의 직원실에 있는 ‘탕탄소’ 라는 다실(茶室)은 수원관립건축 중에서 독특한 특징이다.
- 일제초기 ‘이야’ 는 수비대의무실로 사용되다 1920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 신축 이전하면서 이야건물이 헐려나갔다.
- 북군영 건물은 1910년경 수원경찰서가 개축되면서 헐렸고, 이후 증축과정에서 일부 경찰서 부지가 확장 되었다.
- 남군영은 일제초기 헌병파견소로 사용되다 1932년 토목관구가 신축이전하였고, 그 이전에 남군영 건물이 헐렸다.
- 증영은 수비대 (1907년~19??) → 다카노야마 국민학당(19??~1935년) → 수원군청(1938년) 순으로 사용되었고, 증영 건물은 1938년 이전에 완전히 헐려나갔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기전문화재연구원(2005), 수원 화성내 미복원 시설 지표조사 및 고증연구 보고서
-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 pp.34~57
- 손낙구(2015),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수원박물관 (2013), 특별기획전 '옛 수원 사진전(1900-1960) - 렌즈 속, 엇갈린 시선들 전시도록
- 수원상공회의소 (2008), 수원상공회의소 百年史, 수원상공회의소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3 -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17 - 수원화성-, 수원시사 편찬 위원회
- 수원화성박물관 (2018)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 전시도록
- 안국진 (2014), 수원 근대건축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안국진 (2015), 수원 권업모범장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안국진(2016), 수원농림학교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안국진(2017), 일제강점기 수원 권업모범장 건축술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안국진 (2018), 우화관 복원에 따른 근대건축자산 존치여부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안국진(2018),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승렬 (2013), 한말·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제84호
- 이승희 (2008),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집
- 장필구 (2012),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8(12), pp 239~246
- 주상훈 (2011), 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7(11), pp239~248
- 최성환 (2017), 한말 일제초 수원면 토지와 인물, 수원시정연구원
- 한동민 (2004), 근대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 - 관립수원자혜의원에서 도립수원의원까지, 京畿史學, Vol.8 No.-
-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 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원문 자료〉

東亞日報 1940.05.04

毎日新報 1916.10.01., 1920.04.25., 1932.09.04., 1933.12.28., 1938.08.04., 1939.01.14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1914), 發展せる水原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1923), 水原
수원군읍지(水原君邑誌), 광무 3년(1899)
朝鮮新聞 1932.09.12., 1934.05.20.
朝鮮總督府 (1929), 生活狀態調査 1 -水原郡-
皇城新聞 1909.04.25.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http://www.nl.go.kr/newspaper/>

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 : <http://gb.nl.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to Demolish Official Buildings in Suwo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King Jeongjo built the new Suwon city and constructed the city fortress. From 1790 to 1795, he had several haenggungs built in major stops on his way to his father's tomb Hyeonryungwon(顯隆園). Among these stops, Hwaseong Haenggung(華城行宮) was outstandingly the best in its scale and functions.

However, Hwaseong Haenggung and important buildings of Suwon were demolished gradually and lost their identity since Japan has colonized Korean peninsular. Central area of Hwaseong Haenggung including Bongsudang(奉壽堂) was used for hospital. Police station was located at Bukgunyeong(北軍營) and Suwon county office used Nangnamheon(落南軒) building.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to demolish official buildings in Suwo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especially focusing on specific time, the process and spatial changes of demolition.

The official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were classified into seven parts. 1) Central area of Hwaseong Haenggung 2)Nangnamheon(落南軒) 3)Uhwaguan(于華館) 4)Nam·Bukgunyeong(南·北軍營) 5)Gangmudang(講武堂) 6)Yiah(貳衙) 7)Jungyeong(中營)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entral area of Hwaseong Haenggung was used for hoapital. Bongsudang was main building and changed into patients' rooms after 1923. After relocation of Suwon county office, Nangnamheon was renovated for Suwon public library. First location of Suwon District Court was Gangmudang, not Yiah. Suwon District ourt moved to Yiah in 1920 and the building has a tea room for staffs.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Yiah was used for garrison's medical office. During construction of Suwon District

Court, the original building of Yiah was demolished. Namgunyeong was converted into Japanese military police station in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Suwon civil engineering corporation at Nangnamheon moved to Namgunyeong as a new location. Suwon police station settled in Bukgunyeong, because of this the original building was pulled down. Jungyeong building was used for Japanese garrison station in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akanoyama school was established. In 1938 New Suwon county office was built at Jungyeong.

Keyword : Hwaseong Haenggung, Japanese Colonial Period, Demolition, Suwon

| 저자 약력 |

안국진

동경대 건축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현)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나이토히로시건축설계사무소 근무

E-mail : ah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일제강점기 수원 권업모범장 건축술에 관한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농림학교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화성 옛 물길 수변시설 복원계획」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권업모범장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